

[표준어 모음 제1집]

#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연구소

의 '표준말 모음'의 개정이 아니라 '큰 사전'에서 채택된 표준어의 개정인 것이다. '표준어 규정'이 복수 표준어를 마련한 것은 '큰 사전'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정신을 좀더 발전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 '표준어 규정'으로 표준어 사정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 '큰 사전' 이후에 이를 토대로 한 여러 사전이 간행되었는데 이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예들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심의하는 일이 우선 시급하다. 우리 연구소는 지금 이 일을 빨리 끝내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표준어 규정'이 고시된 뒤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분이 적지 않았다. 이에 우리 연구소가 계획해 온 '표준어 모음' 제 1집을 해설서로 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해설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권말에 붙인 '어휘 목록'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88 년 8 월 20 일

국어연구소 소장 이 기 문

# 제 1 편 해 설

## 제 1 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 1 장 총 칙 .....	7
제 2 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9
제 1 절 자 음 .....	9
제 2 절 모 음 .....	14
제 3 절 준 말 .....	22
제 4 절 단수 표준어 .....	25
제 5 절 복수 표준어 .....	28
제 3 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29
제 1 절 고 어 .....	29
제 2 절 한자어 .....	30
제 3 절 방 언 .....	32
제 4 절 단수 표준어 .....	33
제 5 절 복수 표준어 .....	38

## 제 2 부 표준 발음법

제 1 장 총 칙 .....	45
제 2 장 자음과 모음 .....	47
제 3 장 소리의 길이 .....	51

제 4 장	받침의 발음 .....	57
제 5 장	소리의 동화 .....	65
제 6 장	된소리되기 .....	69
제 7 장	소리의 첨가 .....	72

제 2 편	어휘 목록.....	77
-------	------------	----

# 제 1 편 해 설

제 1 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 2 부 표준 발음법



# 제 1 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제 1 장 총 칙

제 1 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표준어 사정(査定)의 원칙이다.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제 2 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①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의 대비에서 ‘표준말 — 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②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경향도 감안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 이 구절의 또 하나의 의도는 이렇게 정함으로써 앞으로는 표준어를 못 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의 강조도 포함된 것이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인 것이다. 그러기에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에 표준어 훈련 기관이 많이 있어 국회 의원이나 정부 관리 등 공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품위 있는 표준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그러기에 모든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표준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 요건(義務要件)이라 하겠다.

③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역사의 흐름에서의 구획을 인식해서다.

④ ‘서울말’에 대해서 어떤 이는 3대 이상 서울에 뿌리박고 사는 인구가 서울 인구의 불과 20%도 못 되는 현실에 비추어, 차라리 79년 국어심의회

안에서처럼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은 확실히 어떤 공통적인 큰 흐름이 있어, 지방에서 새로 편입해 온 어린이가 얼마 안 가 그 흐름에 동화되는 예를 자주 본다. 이 공통적인 큰 흐름이 바로 서울말인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 와 살 때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1세의 말씨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큰 흐름의 말에 동화되는 현상도 서울말의 엄연한 존재를 웅변적으로 증명해 준다. 그리하여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에서 선명하게 ‘서울말’이라고 굳혀진 것이다.

⑤ 그런데 제 1항의 개정으로 표준어 선정의 기준이 바뀐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현재’가 ‘현대’로 바뀌고 ‘중류 사회’의 말이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말로 바뀐 것이 이번의 개정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제 1항의 개정은 내용보다는 표현의 개정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이번 개정의 실제적인 대상은

(가) 그 동안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에 의해 1933년에 표준어로 규정하였던 형태가 고행(古形)이 된 것

(나) 그 때 미처 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다) 각 사전에서 달리 처리하여 정리가 필요한 것

(라) 방언, 신조어 등이 세력을 얻어 표준어 자리를 굳혀 가던 것 등이었다.

제 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해설** 외래어는 표준어 사정의 중요한 대상이다.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는 그때 그때 사정하여 국어의 일원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정에서는 외래어는 보류하였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짧은 시일에 끝내야 하는 이번 사정에서 성격이 다른 외래어의 사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외래어는 수시로 밀려오므로 꼭 유동적인 성격을 지녀 앞으로 그때 그때 적절히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고시 제 85-11 호(1986. 1. 7)로 공포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의 고유명사의 표기까지 포괄하는 표기법으로서 표준어 규정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 제 2 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제 1 절 자 음

제 3 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끄나풀 나팔-꽃 넙	끄나불 나발-꽃 넙	동~, 들~, 새벽~, 동틀~
부엌 살-팽이 칸	부억 삼-팽이 간	1. ~막이, 빈~, 방 한~ 2. '초가삼간, 윗간'의 경우에는 '간'임.
털어-먹다	떨어-먹다	재물을 다 없애다.

**해설** 제 2 장은 언어 변화 중 발음의 변화가 현저하여 종래의 표준어를 그대로 고수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한 부분이다. 표준어 개정은 표기의 개정도 수반하므로 언어의 변화를 모두 표준어 개정에서 반영하는 일은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 차이가 워낙 현저하여 도저히 고행(古形)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나팔꽃’이나 ‘끄나풀’ 등은 이 개정에서 앞서 이미 일반화되었던 형태들이다. 이 점에서 이번의 표준어 개정은 이미 뿌리를 내린 형태들을 추인(追認)하는 성격의 것이 많다.

① ‘나발꽃’이 ‘나팔꽃’으로 바뀌었으나 ‘나발’과 ‘나팔’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다.

② ‘녁, 부억’은 현행 표준어이므로 제 3항의 다른 단어들과 성격을 달리 하며, 또 이 표준어 규정에 들어 있을 성질의 단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삽입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다.

‘녁, 부억’은 1979년 국어심의회의안(이하 79안이라 하겠음)에서는 ‘녁, 부억’으로 되었던 것이 1984년 학술원안(이하 84안이라 하겠음)에서는 ‘녁, 부억’으로 환원되고, 1987년 국어연구소안(이하 87안이라 하겠음)에서는 다시 ‘녁, 부억’과 같이 예사소리로 돌아갔던 것을 1987년 국어심의회의에서 거센소리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제 3항에서 이 두 단어는 빠져도 좋을 것이다.

③ ‘샅뽕이’의 발음 [샅뽕이]는 언어 현실과 다르므로 ‘살뽕이’로 현실화 하였다. 제 26항에는 ‘살뽕이/샅’과 같이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샅피’는 종래대로 그대로 두었다.

④ ‘칸’과 ‘간’의 구분에서 ‘칸’은 공간(空間)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며, ‘간(間)’은 ‘초가삼간, 대하천간(大廈千間)’ 등 관습적인 표현에만 쓰기로 하였다. 그 결과 ‘일등 칸, 한 칸 벌린다’ 등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칸’만 쓰기로 된 것이다.

제 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가을-갈이 거시기 분침	가을-카리 거시키 푼침	

**해설** 제 3항과 같은 취지로 개정된 것들이나 발음 변화의 방향이 반대인 것들이다.

① ‘거시키’는 79, 84, 87 모든 안에서 다 ‘거시기’로 고쳐졌다.

② ‘분침’은 ‘分針’이다.

제 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강남-콩 고삐 사글-세 울력-성당	강남-콩 고삐 삭월-세 위력-성당	걸~, 속~ '월세'는 표준어임. 때를 지어서 으르고 험박 하는 일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갈비 갓모	가리 갈모	~구이, ~찜, 갈빗-대 1. 사기 만드는 물레 밑 고리 2. '갈모'는 갓 위에 쓰 는, 유지로 만든 우비
굴-것 말-걸 물-수란 밀-뜨리다 적-이 휴지	구-것 말-것 물-수란 미-뜨리다 저으기 수지	적이-나, 적이나-하면

**해설** 어원(語源)이 뚜렷한데도 언중(言衆)들의 어원 의식이 약하여져 어원으로부터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아무리 어원에 충실한 형태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표준어 영역 밖으로 밀어낼 것을 다룬 항이다.

① '강남콩(江南~)'은 '남비'(제 9 항)와 함께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강남콩, 남비'로 쓰이고 있는 언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② '지붕을 이을 때에 쓰는 새끼'와 '좁은 골목이나 길'을 다 함께 '고삐'으로 써 오던 것을 분화시켜 앞의 것을 '고삐'으로 바꾼 것이다.

③ '월세(月費)'의 단 말인 '삭월세'를 '朔月費'의 뜻으로 잡아 '사글세'란 말과 함께 써 오던 것을 '朔月費'는 단순한 한자 취음(漢字取音)일 뿐으로 취할 바가 못 된다 하여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다만, 어원 의식이 남아 있어 그 쪽 형태가 쓰이는 것들은 그 짝이 되는 비어원적인 형태보다 우선권을 줄 것을 다룬 항이다.

① ‘휴지’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자어 ‘休紙’에 대한 의식으로 종래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수지’보다 널리 쓰이게 되어 이번에 ‘휴지’만을 단일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② 같은 이유로 ‘갈비’가 채택되고 그 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가리’를 버리게 되었다.

③ 이 중 ‘적이’는 특이하다. ‘적이’는 의미적으로 ‘적다’와는 멀어졌다.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때문에 그 동안 한편으로는 ‘저으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다’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제 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돌 둘-째 셋-째 넷-째 빌리다	똥 두-째 세-째 네-째 빌다	생일, 주기 ‘제 2, 두 개째’의 뜻 ‘제 3, 세 개째’의 뜻 ‘제 4, 네 개째’의 뜻 1. 빌려 주다, 빌려 오다 2. ‘용서를 빌다’는 ‘빌다’임.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

ㄱ	ㄴ	비 고
열두-째 스물두-째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둘째’로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째’로

**해설** 그 동안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온 것 중 그 구별이 어려워 혼란을 일으켜 오던 것을 정리한 것이다.

① ‘돌’은 생일, ‘똥’은 ‘한글 반포 500 똥’처럼 주기의 의미로 세분해 썼던 것을, 그러한 구분이 얼마간 인위적인데다가 불필요한 세분이라 판단되어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② ‘두째, 세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

째 ‘사과를 벌써 셋째 먹는다’에서와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언어 현실에서 이와 같은 구분 역시 인위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둘째, 셋째’로 통합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두째, 세째, 네째’와 같은 표기는 어느 경우에도 볼 수 없게 되었다.

③ ‘빌다’에는 ‘乞, 祝’의 뜻이 있기에, ‘借’의 뜻으로는 ‘빌려 오다’로, ‘貸’의 뜻으로는 ‘빌려 주다’로 하여, ‘빌리다’에는 ‘借, 貸’의 뜻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만.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 등 ‘두째’ 앞에 다른 수가 올 때에는 받침 ‘ㄹ’이 분명히 탈락하는 언어 현실을 살려 부득이 종래의 구분을 살렸다.

제 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수-평	수-평, 숫-평	‘장끼’도 표준어임.	
수-나사	숫-나사		
수-놈	숫-놈		
수-사돈	숫-사돈		
수-소	숫-소		‘황소’도 표준어임.
수-은행나무	숫-은행나무		

다만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수-강아지	숫-강아지	
수-개	숫-개	
숫-것	숫-것	
수-기와	숫-기와	
수-닭	숫-닭	
수-당나귀	숫-당나귀	
수-돌쩌귀	숫-돌쩌귀	
수-돼지	숫-돼지	
수-병아리	숫-병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숫-양 숫-염소 숫-쥐	수-양 수-염소 수-쥐	

**해설** ‘암-수’의 ‘수’는 역사적으로 명사 ‘술’이었다. 오늘날 ‘수캐, 수탉’ 등에 받침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술’은 명사로 쓰이는 일은 ‘암수’라는 복합어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접두사로만 쓰이게 되었고, 그로써 받침 ‘ㅎ’의 실현이 복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접두사 ‘술~수’의 처리는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다.

다만 1. 받침 ‘ㅎ’이 다음 음절 첫소리와 거센소리를 이룬 단어들로서 역사적으로 복합어가 되어 화석화한 것이라 보고 ‘술’을 인정하되 표기에서는 받침 ‘ㅎ’을 독립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단어까지가 이 유형으로 화석화한 것인지의 경계를 긋기가 어려운 점이 남아 있다. ‘수탉, 수캐’ 등은 혼란의 여지가 없지만 ‘수탕나귀’는 서투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개미, 거미’도 ‘수캐미, 수커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센소리를 [다만 1]에 제시된 단어에 한하여 인정하였다.

다만 2.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숫-’의 형태를 취하였다.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통일하였다. 이 접두사의 기본형을 ‘수-’로 잡은 것이다. 여기 제시된 이외의 어떤 단어, 가령 ‘거미, 개미, 할미새, 나비, 술’ 등은 모두 ‘수거미, 수개미, 수할미새, 수나비, 수술’로 통일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놈, 수소’의 현실음이 과연 아무 받침이 없이 이렇게 발음되는지, 아니면 ‘숫놈, 숫소’인지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숫쥐, 숫양’은 ‘수쥐, 수양’이 아니면서 ‘수놈, 수소’는 ‘숫놈, 숫소’가 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드러나기도 한다.

제 8 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깡충-깡충 -동이	깡충-깡충 -동이	큰말은 '깡충깡충'임. ← 童-이. 귀-, 막-, 선-, 쌍-, 검-, 바람-, 흰-
발가-송이	발가-송이	센말은 '빨가송이', 큰말 은 '벌거송이, 뽕거송이' 임.
보통이	보통이	← 攀足. ~꾼, ~들다
봉죽	봉죽	
뽕장-다리	뽕장-다리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
아서, 아서라	앗아, 앓아라	부사도 '오뚝-이' 임.
오뚝-이	오뚝-이	← 柱礎. 주춧-돌
주춧	주춧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부조(扶助)	부주	~금, 부춧-술
사둔(査頓)	사둔	발~, 안~
삼촌(三寸)	삼촌	시~, 외~, 처~

**해설** 국어는 모음조화(母音調和)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다. 그러나 모음조화 규칙은 후세로 오면서 많이 무너졌고, 현재에도 더 약해지고 있는 편이다. 이 규칙의 붕괴는 대체로 한쪽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면서 나타난다.

이 항에서 다룬 것들도 대부분 그러한 예들이다. 애초 양성모음이던 발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뀐 단어들이었다. 지금까지 모음조화 규칙에 얽매어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현실 발음을 받아들여 음성모음화 현상을 인정한 것이다.

① 종래의 '깡충깡충'은 언어 현실에 따라 '깡충깡충'으로 했다. 그리고 '오뚝이'도 명사나 부사에서 다 '오뚝이'로 했다.

② '-동이, 빨가송이, 보통이'도 음성모음화를 인정하여 '-동이, 빨가송이, 보통이'로 했다.

③ ‘봉족(奉足), 주초(柱礎)’는 한자어로서의 형태를 인식하지 않고 쓸 때 ‘봉족, 주초’와 같이 음성모음 형태를 인정했다.

④ ‘뺨정다리’는 언어 현실의 수용이다.

⑤ 종래의 금지사(禁止辭) ‘앗아, 앓아라’는 빼앗는다는 원뜻과는 떨어져 단지 하지 말라는 뜻이므로 발음대로 쓰기로 하고, 다시 언어 현실에 따라 음성모음 형태를 취하여 ‘아서, 아서라’로 한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주, 사둔, 삼춘’이 널리 쓰이는 형태이나 이들은 어원을 의식하는 경향이 커서 음성모음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査頓’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단순한 한자 취음어(漢字取音語)이므로 ‘사둔’ 형태를 취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자 포기 의식이 아직은 강하게 남아 있으므로 그대로 ‘사둔’으로하기로 한 것이다.

제 9항 ‘ㄱ’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나기 남비 동당이-치다	서울-, 시골-, 신출-, 풋-

[붙임 1] 다음 단어는 ‘ㄱ’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아지랑이	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미장이 유기장이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골목쟁이 밭목쟁이	미쟁이 유기쟁이 멋장이 소금장이 담장이-덩굴 골목장이 밭목장이	



**해설** ‘ㄱ’ 역행동화는 전국적으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대부분 주의해서 발음하면 피할 수 있는 발음이어서 그 동화형(同化形)을 표준어로 삼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이 동화 현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그것을 다 표준어로 인정하면 너무 큰 변혁이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가령 ‘손잡이, 떡이다’까지 ‘손잡이, 떡이다’로 바꾼다면 여간 큰 변혁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의 개정에서 ‘ㄱ’ 역행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표준어의 개정은 극소화하였다.

①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나기’는 그대로 쓰임직하나 ‘신출나기, 뚫나기’는 어색하므로 일률로 ‘-내기’로 한 것이다.

② ‘냄비’는 종래 일본어 ‘나베’(鍋)에서 온 말이라 하여 원형을 의식해서 처리했던 것이나, 이제 와서는 제 5항에서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냄비’로 한 것이다.

**붙임 1.** ‘아지랑이’는 사전에서 ‘아지랭이’로 고쳐져 교과서에 반영되어 그 동안 ‘아지랭이’가 표준어로 행세해 왔으나 현실 언어가 ‘아지랑이’이므로 36년에 정한 대로 ‘아지랑이’로 되돌린 것이다.

**붙임 2.** ‘-장이’는 논란이 많았던 항목인데 하나의 타협안으로서 ‘匠人’이란 뜻이 살아 있는 말은 ‘-장이’로, 그 외는 ‘-쟁이’로 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미장[泥匠], 유기장(鑰器匠)’은 ‘미장이, 유기장이’로 한 것이다. 갓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갓장이’, 갓을 멋들어지게 쓰는 사람은 ‘멋쟁이’의 경우에 준하여 ‘갓쟁이’로 분화되는 것이다.

**제 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피팍-하다 -구면	피팍-하다 / 피떡-하다 -구면	
미루-나무 미룩	미류-나무 미력	←美柳~ ←彌肋. ~보살, ~불, 돌~
여느	여늬	
은-달	윈-달	만 한 달
으레	으레	

케케-묵다 허우대 허우적-허우적	케케-묵다 허위대 허위적-허위적	허우적-거리다
-------------------------	-------------------------	---------

**해설**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특히 ‘긱, 귀, 귀, 귀’ 등의 원순모음을 평순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일부 방언의 특징이다. ‘벼 → 베, 사과 → 사가’ 등. 그러나 이 항에서 다룬 단어들은 표준어 지역에서도 모음의 단순화 과정을 겪고, 이제 애초의 형태는 들어 보기 어렵게 된 것들이다. 한 예로 ‘미류나무(美柳~)’는 어원적으로 분명히 ‘미류~’인데 이제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으레’ 역시 원래 ‘의례(依例)’에서 ‘으레’가 되었던 것인데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고, 나머지들도 모두 모음이 단순화된 예들이다.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 ‘괴팍하다’는 얼마간 문제다. 이 단어의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다. 그런데 같은 계열의 단어로써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등이 이번의 개정에서 빠진 것이다. 후자들은 ‘괴팍하다’만큼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현실적으로 별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나 얼마간의 불균형은 안고 있는 셈이다.

**제 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구려 각쟁이	-구료 각정이	1. 서울~, 알~, 찰~ 2.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발침은 ‘각정이’임.
나무라다 미수 바라다	나무래다 미시 바래다	미숫-가루 ‘바람(所望)’은 비표준어 임. ~쌈
상추 시러베-아들 주책	상치 실업의-아들 주착	←主着. ~망나니, ~없 다
지루-하다 튀기	지리-하다 트기	←支離.

허드레 호루라기	허드래 호루루기	허드렛-물, 허드렛-일
-------------	-------------	--------------

【해설】 제 8 항~제 10 항의 모음 변화처럼 어느 한 현상으로 묶기 어려운 모음 변화에 의한 것들을 모은 항이다.

① ‘-구려’와 ‘-구료’는 미묘한 의미차가 있는 듯도 하나 확연치 않아 ‘-구려’ 쪽만 살린 것이다.

② ‘깍정어 → 깍쟁이’는 ‘ㅣ’ 역행동화의 일종이나 ‘깍쟁이’가 아니라 ‘깍쟁어’를 표준어로 삼음으로써 제 9 항에 넣지 않고 여기에서 다루었다. 비고에서 보듯이 도토리 등의 ‘깍정어’는 그대로 두었다.

③ ‘나무래다, 바래다’는 방언으로 해석하여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그런데 근래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바람’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바람[風]’과의 혼동을 피하려는 심리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동사가 ‘바라다’인 이상 그로부터 파생된 명사가 ‘바람’이 될 수는 없어, 비고에서 이를 명기하였다.

④ ‘미수 → 미시’나 ‘상추 → 상치’는 치찰음 다음에서의 ‘ㅣ’ 모음화로 보고 ‘미수, 상추’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며, ‘튀기 → 트기’는 모음의 단순화 현상일 터인데 아직 원형이 쓰이고 있다고 보아 제 10 항에서와는 달리 ‘튀기’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⑤ ‘주책(← 주착, 主着), 지루하다(← 지리하다, 支離)’는 한자어 어원을 버리고 변한 형태를 취한 것이다.

⑥ ‘시러베아들(← 실업의아들), 허드레(← 허드래), 호루라기(← 호루루기)’는 현실 발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제 12 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윗-넓이	웃-넓이	
윗-눈썹	웃-눈썹	
윗-니	웃-니	
윗-당줄	웃-당줄	

윗-덧줄	웃-덧줄	준말은 '윗동'임.  ~운동  수학용어
윗-도리	웃-도리	
윗-동아리	웃-동아리	
윗-막이	웃-막이	
윗-머리	웃-머리	
윗-목	웃-목	
윗-몸	웃-몸	
윗-바람	웃-바람	
윗-배	웃-배	
윗-벌	웃-벌	
윗-변	웃-변	
윗-사랑	웃-사랑	
윗-세장	웃-세장	
윗-수염	웃-수염	
윗-입술	웃-입술	
윗-잇몸	웃-잇몸	
윗-자리	웃-자리	
윗-중방	웃-중방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위-짜	웃-짜	~구름(上層雲)
위-쪽	웃-쪽	
위-채	웃-채	
위-층	웃-층	
위-치마	웃-치마	
위-턱	웃-턱	
위-팔	웃-팔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웃-국	윗-국	~걸다
웃-기	윗-기	
웃-돈	윗-돈	
웃-비	윗-비	
웃-어른	윗-어른	
웃-웃	윗-웃	

**해설** 그 동안 극심하게 혼란을 일으켜 온 '웃'과 '윗'을 한쪽으로 통일하

고자 한 결과다. 이들은 명사 ‘위’에 사이시옷이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여 ‘윗’을 기본으로 삼았다. (고시본에 예시되었던 ‘윗통’은 [다만 1]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이므로 삭제하였다.)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맞춘 것이다.

다만 2. 발음이 위낙 ‘웃’으로 굳은 단어들이어서 예외로 처리한 것이다. 이 때 그 경계를 긋는 문제가 쉽지 않다. 대체로 ‘윗목 — 아랫목, 윗자리 — 아랫자리’처럼 ‘위 — 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윗’을 취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만 ‘웃’을 인정하였지만, ‘웃어른’은 절대로 ‘윗어른’이 아니라든가, ‘윗목’은 ‘웃목’으로 굳어져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경계가 그리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웃’으로 표기되는 단어를 최대한 줄이고 ‘윗’으로 통일함으로써 ‘웃~윗’의 혼란은 한결 줄어든 셈이다.

제 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구법(句法)	귀법	
구절(句節)	귀절	
구점(句點)	귀점	
결구(結句)	결귀	
경구(警句)	경귀	
경인구(警人句)	경인귀	
난구(難句)	난귀	
단구(短句)	단귀	
단명구(短命句)	단명귀	
대구(對句)	대귀	~법(對句法)
문구(文句)	문귀	
성구(成句)	성귀	~어(成句語)
시구(詩句)	시귀	
어구(語句)	어귀	
연구(聯句)	연귀	
인용구(引用句)	인용귀	
절구(絕句)	절귀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귀-글 글-귀	구-글 글-구	

**해설** 종래 ‘구’와 ‘귀’로 혼동이 심했던 ‘句’의 음을 ‘구’로 통일한 것이다.

다만, ‘句’의 혼과 음은 ‘글귀 구’이다. 따라서 ‘글귀, 귀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 3 절 준 말

제 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귀찮다 김 파리 무	귀치 않다 기음 또아리 무우	~매다  ~강즙, ~말랭이, ~생채, 가랑~, 갓~, 왜~, 총각~
미다	무이다	1. 털이 빠져 살이 드러나다. 2. 찢어지다
뱀 뱀-장어 빔 샘 생-취 솔개 온-갓 장사-치	배암 배암-장어 비음 새암 새암-취 소리개 온-가지 장사-아치	설~, 생일~ ~바르다, ~바리

**해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또는 사전에서만 밝혀져 있을 뿐 현실 언어에서는 전혀 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본말을 표준어에서 제거하고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가령 ‘귀치 않다’나 ‘온가지’는 현실 언어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귀찮다, 온갖’이 벌써부터 유일한 형태로 쓰여 왔다. 준말 형태를 취한 이들 말 중 2음절이 1음절로 된 음절은 대개 긴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나 ‘귀찮다, 슬개, 온갖, 장사치’에서는 짧은소리로 난다.

제 15 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경황-없다	경-없다	모양이 제격에 어울린다.  정월 보름에 쓰는 ‘부럼’은 표준어임.
궁상-떨다	궁-떨다	
귀-개	귀-개	
김새	김	
낙인-찍다	낙-하다 / 낙-치다	
내왕-꾼	냉-꾼	
돛-자리	돛	
뒤웅-박	똥-박	
뒷물-대야	뒷-대야	
마구-잡이	막-잡이	
맷자-하다	맷자다	
모이	모	
벽-돌	벽	
부스럼	부럼	
살얼음-판	살-판	
수두룩-하다	수둑-하다	
암-죽	암	
어음	엄	
일구다	일다	
죽-살이	죽-살	
퇴박-맞다	퇴-맞다	
한통-치다	통-치다	

[붙임]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아래-로	알-로	

**해설** 본말이 훨씬 널리 쓰이고 있고, 그에 대응되는 준말은 쓰인다 하여도 그 세력이 극히 미미한 경우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일반적으로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겠으나 그 쓰임

이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준말 형태를 버린 것이다.

이 중 ‘귀개’는 ‘귀이개’와 더불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 줄 법도 하나 ‘귀개’로 표기하면 단음으로 읽힐 염려도 있어 ‘귀이개’만을 취하였다.

이 항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마음 → 맘, 다음 → 담’의 준말은 표준어로 인정되어 있는데 ‘어음 → 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균형을 깨는 처리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음’은 사무적인 용어인 만큼 ‘맘, 담’과 같은 생활 용어보다는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어 ‘엄’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제 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ㄱ은 본말이며, ㄴ은 준말임.)

ㄱ	ㄴ	비 고
거짓-부리	거짓-불	작은말은 ‘가짓부리, 가짓불’임 저녁~  }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음.  외우며, 외워 : 외며, 외어  ‘찌꺼지’는 비표준어임.
노을	놀	
막대기	막대	
망태기	망태	
머무르다	머물다	
서두르다	서둘다	
서투르다	서틀다	
석새-삼베	석새-베	
시-누이	시-뉘/시-누	
오-누이	오-뉘/오-누	
외우다	외다	
이기죽-거리다	이죽-거리다	
찌꺼기	찌끼	

**해설** 앞의 제 14 항, 제 15 항과는 달리 본말과 준말을 함께 표준어로 삼은 단어들이다.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것들이어서 어느 하나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중 ‘외우다 → 외다’의 관계는 좀 특이하다. 종래에는 ‘외다’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인데 ‘외우다’가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다. 준말에서 본말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특이한 것인데 둘의 관계가 어느 본말 — 준말의 관계와 비슷하여 여기에서 함께 다루었다.



비슷한 경우로 ‘개다’와 함께 ‘개이다, 개임’의 형태도 꽤 널리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후자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한 잘못된 발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비고란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단서를 붙여 준말의 활용형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가지다’의 준말 ‘갓다’의 모음 어미 활용형 ‘갓아, 갓아라, 갓았다, 갓으오, 갓은’ 따위가 성립하지 않는 현상에 유추하여 준말의 활용형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머물어, 서둘어서, 서둘었다’는 ‘머물러, 서둘러서, 서둘렀다’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다만 ‘머물어, 머물었다, 머무오’가 현재 꽤 널리 쓰이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하리라 본다.

참고로 ‘머무르다’와 같은 형인 ‘짓무르다’는 준말 ‘짓물다’형을 인정하지 않았다(제 17 항). ‘무르다’가 ‘물다’로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 제 4 절 단수 표준어

제 17 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거든-그리다	거둥-그리다	1.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 2. 작은말은 ‘가든-그리다’임.
구어-박다	구워-박다	사람이 한 군데서만 지내다.
귀-고리	귀엣-고리	
귀-뜸	귀-뜸	
귀-지	귀에-지	
까딱-하면	까떡-하면	
꼭두-각시	꼭득-각시	
내색	나색	감정이 나타나는 얼굴빛
내숭-스럽다	내홍-스럽다	
남남-거리다	얌얌-거리다	남남-하다
남남-이	얌얌-이	
너(四)	네	~돈, ~말, ~발, ~푼

녁(四)  
다다르다  
땀-싸리  
더부룩-하다

-던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던지  
-(으)려고

-(으)려야  
  
망가-뜨리다  
멀치  
반빚-아치

보습  
본새  
봉숭아  
뺨-따귀  
빠개다(斫)  
빠기다(誇)  
사자-탈  
상-판대기  
서(三)  
석(三)  
설령(設令)  
-습니다

시름-시름  
썸벅-썸벅  
아궁이  
아내  
어-중간  
오금-팽이

너/네  
다달다  
대-싸리  
더부룩-하다/듬부룩-하다

-든  
  
-든가  
  
-든걸  
-든고  
-든데  
-든지  
-(으)리려고/-(으)리라

고  
-(으)리려야/-(으)리라  
야  
망그-뜨리다  
머루치/메리치  
반비-아치

보십/보섭  
본새  
봉숭화  
뺨-따귀/뺨-따구니  
빠기다  
빠개다  
사지-탈  
쌍-판대기  
세/석  
세  
서령  
-읍니다

시늴-시늴  
썸벅-썸벅  
아궁지  
안해  
어지-중간  
오금-탱이

~냥, ~되, ~섬, ~자

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든'임.  
가-든(지) 말-든(지), 보-든(가) 말-든(가)

'반빚' 노릇을 하는 사람, 찬비(饑婢). '반비'는 밥 짓는 일을 맡은 계집종

'봉숭화'도 표준어임.  
'뺨'의 비속어임.  
두 조각으로 가르다.  
뿔내다

~돈, ~말, ~밭, ~꾼  
~냥, ~되, ~섬, ~자

먹습니다, 갓습니다, 없습  
니다, 있습니다, 좋습  
니다  
모음 뒤에는 '-비니다'임.

오래-오래 -올시다 옹골-차다 우두커니 잠-투정 재봉-틀 짓-무르다 짚-북대기 쪽	도래-도래 -올습니다 공골-차다 우두머니 잠-투세/잠-주정 자봉-틀 짓-물다 짚-북세기 쪽	돼지 부르는 소리  작은말은 '오도카니'임.  발~, 손~  '짚북대기'도 비표준어임. 편(便). 이~, 그~, 저~ 다만, '아무-쪽'은 '쪽'임. '천정부지(天井不知)'는 '천정'임
천장(天障)	천정	
코-맹맹이 흥-엷다	코-맹녕이 흥-헛다	

**해설** 약간의 발음 차이로 두 형태, 또는 그 이상의 형태가 쓰이는 것들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다음 항의 복수 표준어와 대립되는 처리인데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려면 그 발음 차이가 이론적으로 설명되든가 두 형태가 비등하게 널리 쓰이든가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처리한 것들은 두 형태를 다 표준어로 인정하면 국어를 풍부하게 하는 쪽보다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서 단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① '구어박다(← 구워박다)'는 '사람이 한군데서만 지내다'의 뜻으로 쓰일 경우 원뜻과 떨어져 원형을 안 밝힌 것이다.

② '-습니다'는 종래 '-습니다, -읍니다' 두 가지로 적고 '-습니다' 쪽이 더 각듯한 표현이라고 해 왔으나, 이 규정에서는 '-습니다'와 '-읍니다' 사이의 그러한 의미차가 확연하지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 쪽으로 통일한 것이다. '-올습니다, -올시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올시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③ '썸벅썸벅'은 '썸벅썸벅'의 뜻으로는 버리나 '잘 드는 칼에 쉽사리 계속해서 베어지는 모양이나 그 소리'의 뜻으로는 표준어다.

### 제 5 절 복수 표준어

제 18 항 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한다.

ㄱ	ㄴ	비 고
네 쇠-	예 소-	-가죽, -고기, -기름, -머리, -뼈 물이~, 밑을~.
괴다	고이다	어린애를~, 벌레가~.
괴다	꼬이다	바람을~.
쇠다	쏘이다	나사를~.
죄다	조이다	별을~.
죄다	쪼이다	

**해설** 앞에서 밝힌 대로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를, 그 발음 차이가 국어의 일반 음운 현상으로 설명되면서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것들이라는 이유로 모두 표준어로 삼은 규정이다. 이번 표준어 규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복수 표준어를 많이 허용하여 국어의 폭을 넓히려 한 것인데, 제 18 항에 해당되는 예는 많지 않지만 이 항도 그러한 정신의 일단이 발로된 규정이라 할 만하다.

① 대답하는 말 ‘네/예’에서 지금까지는 ‘예’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나 서울말에서는 오히려 ‘네’가 더 보편적으로 쓰여 왔고 또 쓰이고 있으므로 그것을 앞에 내세워 ‘예’와 함께 쓰기로 한 것이다.

② ‘쇠-/소-’에서 ‘쇠-’는 전통적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제 19 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 ㄴ을 모두 표준어로 삼음.)

ㄱ	ㄴ	비 고
거슴츠레-하다	계슴츠레-하다	~신, ~옷
교까	꼬까	교만한 태도
고린-내	코린-내	
교기(驕氣)	가기	
구린-내	쿠린-내	

꺼림-하다 나부랭이	깨름-하다 너부렁이	
---------------	---------------	--

**해설** 어감(語感)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이다.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별개의 단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워낙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이 중 ‘나부랭이/너부렁이’에서 ‘너부렁이’를 ‘나부랭이’에 견주어 ‘너부렁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언어 현실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제 3 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제 1 절 고 어

제 20 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난봉 낭떠러지 설거지-하다 애달프다 오동-나무 자두	봉 낭 설것다 애답다 머귀-나무 오얏	

**해설** 여기에서부터는 발음상의 변화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단어들을 사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① ‘설것다’를 버린 것은 ‘설것어라, 설것으니, 설것더니’와 같은 활용형이 안 쓰여 어간 ‘설것-’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명사 ‘설거지’를 ‘설것-’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표기도 ‘설것이’로 하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이 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② ‘애닭다’는 노래 등에는 ‘애닭다 어이하리’ 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고어(古語)의 잔재일 뿐 이 용언 역시 ‘애닭으니, 애닭아서, 애닭은(/애달운)’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파서, 애달픈’ 등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③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는 버리나 ‘운향과에 딸린 갈잎 큰 키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다.

④ ‘오얏’은 ‘李 오얏 리’ 등에 남아 있으나 역시 고어의 화석화일 뿐 현대 국어의 일원으로 쓰이지 않아 고어로 처리하였다.

## 제 2 절 한자어

제 21 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가루-약	말-약	
구들-장	방-돌	
길품-삿	보행-삿	
까막-눈	맹-눈	
꼭지-미역	총각-미역	
나뭇-갓	시장-갓	
늪-다리	노닥다리	
두껍-달이	두껍-창	
떡-암죽	병-암죽	
마른-갈이	건-갈이	
마른-빨래	건-빨래	
매-찰떡	반-찰떡	
박달-나무	배달-나무	
밥-소라	식-소라	
사래-논	사래-담	
사래-밭	사래-전	
삿-말	삿-마	
성냥	화곽	
숫을-무늬	숫을-문(一紋)	
외-지다	벽-지다	
움-파	동-파	
		큰 늦그릇 묘지거나 마름이 부쳐 먹 는 땅

앞-담배 잔-돈 조-당수 죽데기 지겟-다리 짐-꾼 푼-돈 흰-말 흰-죽	앞-초 잔-전 조-당죽 피-죽 목-발 부지-꾼(負持-) 분전/푼전 백-말/ 부루-말 백-죽	'죽더기'도 비표준어임. 지게 동발의 양쪽 다리  '백마'는 표준어임.
---	--	--

**해설** 이번 개정에서 단순히 한자어라는 이유 하나로 표준어에서 제거한 것은 없다. 본항의 한자어들은 우리 국어 생활에서 그 쓰임을 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정리된 것이다. 대응되는 고유어 계열이 더 자연스러운 국어로 느껴져 더 큰 세력을 얻은 결과일 것이다.

제 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기을 표준어로 삼고, 니을 버림.)

ㄱ	ㄴ	비 고
개다리-소반 겹-상 고봉-밥 단-벌 마방-집 민망-스럽다/면구-스럽다 방-고래 부항-단지 산-누에 산-줄기 수-삼 심-돋우개 양-파 어질-병 윤-달 장력-세다 제석 총각-무 칫-술 포수	개다리-밥상 맛-상 높은-밥 홀-벌 마바리-집 민주-스럽다  구들-고래 뜰-단지 멧-누에 멧-줄기/멧-발 무-삼 불-돋우개 둥근-파 어질-머리 군-달 장성-세다 젓-돛 알-무/알타리-무 잇-술 총-냉이	馬房~

**해설** 앞의 제 21 항과 대립적인 규정이다. 앞 항에서 한자어라고 하여 버리지 않았던 것과 같은 정신으로, 고유어라고 부당한 특혜를 주어 표준어로 삼는 일을 삼간 것이다. 고유어라도 일상 언어 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들은 버리고 그에 짝이 되는 한자어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비고란에 한자가 나타나지 않은 말 중 한자가 뜻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참고로 다음에 정리해 둔다.

개다리-소반(小盤), 겸상(兼牀), 고봉(高捧)-밥,  
 단(單)-벌, 민망(憫惘)-스럼다/면구(面灸)-스럼다,  
 방(房)-고래, 부항(附缸)-단지, 수삼(水蓼),  
 심(心)-돋우개, 양(洋)-과, 윤(閏)-달, 장력(壯力)-세다,  
 제석(祭席), 총각(總角)-무, 칫(齒)-솔, 포수(砲手)  
 ‘심-돋우개’는 ‘심-도두개’로 고시되었던 것인데 그 표기가 잘못이었으므로 바로잡았다.

### 제 3 절 방 언

제 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을 표준어로 삼고, ㄴ도 표준어로 남겨 둠.)

ㄱ	ㄴ	비 고
멍게	우렁쟁이	
물-방개	선두리	
애-순	어린-순	

**해설** 방언 중에서 세력을 얻어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을 표준어로 추인(追認)해 주는 성격의 규정이다. 일례로 ‘멍게/우렁쟁이’에서 ‘우렁쟁이’가 표준어이나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말하자면 방언이 표준어의 자격을 인정 받은 예이다. 이 때 애초의 표준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제 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기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귀밑-머리 까-뭉개다 막상 빈대-떡 생인-손 역-겹다 코-주부	컷-머리 까-무느다 마기 빈자-떡 생안-손 역-스렵다 코-보	준말은 '생-손'임

**해설** 제 23 항과 마찬가지로 방언을 표준어로 승격시킨 규정이나, 여기에서는 애초의 표준어를 아예 버린 것이 다르다. 가령 '빈자떡'은 이제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방언이던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역스렵다'를 버리고 '역겹다'만 살린 것도 그렇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코주부'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생인손(←생안손)에서 '생으로 얹게 된 손(가락)'이란 뜻의 '생안손'보다 '생인손'이 더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것을 현실화한 것이다. 손가락의 모양이 새앙처럼 생긴 '새앙손이'(제 25 항)와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 제 4 절 단수 표준어

제 25 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게끔 점사-점사 고구마 고치다 골목-쟁이 광주리 괴통 국-물 군-표 길-잡이	-게시리 점지-점지/점두-점두 참-감자 낫우다 골목-자기 광우리 호구 멀-국/말-국 군용-어음 길-앞잡이	병을~.  자루를 박는 부분  '길라잡이'도 표준어임.

까다롭다

농-지거리

다사-스럽다

다오

담배-꽂초

담배-설대

대장-일

뒤져-내다

뒤통수-치다

등-나무

등-때기

등잔-걸이

떡-보

똑딱-단추

매-만지다

먼-발치

머느리-발톱

명주-불이

목-매다

밀짚-모자

바가지

바람-꼭지

반-나절

반두

버젓-이

본-받다

부각

부끄러워-하다

부스러기

부지깡이

부항-단지

볶으랴-푸르랴

비켜-덩이

까치-발

까닭-스럽다/까탈-스럽다

기롱-지거리

다사-하다

다구

담배-꼬투리/담배-꽂초/담배-꽂추

대-설대

성냥-일

뒤어-내다

뒤꼭지-치다

등-침

등-떠리

등경-걸이

떡-총이

딸꼭-단추

우미다

먼-발치기

뒷-발톱

주-사니

목-맷히다

보릿짚-모자

열-바가지/열-박

바람-고다리

나절-가웃

독대

뉘연-히

법-받다

다시마-자반

부끄리다

부스러지

부지깡이

부항-항아리

푸르랴-볶으랴

옆-사리미

까치-다리

다른 의미의 '기롱지거리'는 표준어임.

간섭을 잘 하다.

이리~.

'등'의 낮은 말

튜브의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은, 석로 만든 꼭지

그물의 한 가지

부스럼에서 피고름을 빨아내기 위하여 부항을 붙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단지

김멜 때에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 또는 그 흙덩이

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

꼬창-모

나룻-배  
 낚-도리  
 빙충-이  
 빠-뜨리다  
 뺏뺏-하다  
 뿔-내다  
 사로-잡그다

살-풀이  
 상투-쟁이  
 새앙-손이  
 셋-벌  
 선-머슴  
 섭섭-하다  
 속-말

손목-시계  
 손-수레  
 쇠-고랑  
 수도-꼭지  
 숙성-하다  
 순대  
 술-고래

식은-땀  
 신기-롭다  
 쌍둥-밤  
 쏜살-같이  
 아주  
 안-걸이  
 안다미-씩우다

안쓰럽다  
 안절부절-못하다  
 앓은뱅이-저울  
 알-사탕  
 압-내  
 앞-지르다  
 애-벌레  
 알은-피  
 언뜻

말뚝-모

나루  
 민-도리  
 빙충-맛이  
 빠-치다  
 왜긋다  
 느물다  
 사로-채우다

살-막이  
 상투-꼬부랑이  
 생강-손이  
 새벽-벌  
 풋-머슴  
 애운-하다  
 속-소리

팔목-시계 / 팔뚝-시계  
 손-구루마  
 고랑-쇠  
 수도-고동  
 숙-지다  
 골집  
 술-꾸러기 / 술-부대 / 술-보 / 술-푸대

찬-땀  
 신기-스럽다  
 쪽-밤  
 쏜살-로  
 영판  
 안-낚시  
 안다미-시키다

안-슬프다  
 안절부절-하다  
 앓은-저울  
 구슬-사탕  
 결땀-내  
 따라-먹다  
 어린-벌레  
 물탄-피  
 편뜻

꼬창이로 구멍을 뚫으면  
 서 심는 모  
 '나루(津)'는 표준어임.

작은말은 '빙충이'  
 '빠트리다'도 표준어임.

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만 걸어 놓다.

상투 튼 이를 놀리는 말

국악 용어 '속소리'는 표  
 준어임.

'구루마'는 일본어임.

'신기-하다'도 표준어임.

씨름 용어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  
 게 넘기다.

언제나	노다지	
얼룩-말	워라-말	
-에는	-엘랑	
열심-히	열심-으로	
입-담	말-담	
자배기	너벅지	
전봇-대	전선-대	
주책-없다	주책-이다	'주착→주책'은 제11항 참조
취락-펴락	펴락-취락	
-지만	-지만서도	←-지마는
짓고-땡	지어-땡 / 짓고-땡이	
짧은-작	짜른-작	
찹-쌀	이-찹쌀	
청대-콩	푸른-콩	
침-범	갈-범	

**해설** 제 17 항에서와 같은 정신으로 단수 표준어를 규정한 것이다. 즉,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국어를 풍부하게 하기보다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에서 어느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가령 ‘참감자’를 ‘고구마’와 병용시키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버리고 ‘고구마’만 살린 것이 그 일례다. 제 17 항은 발음상으로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였음에 반해 여기에서 다루어진 단어들은 ‘고구마’와 ‘참감자’의 관계처럼 어원을 달리하는 단어들이다.

① ‘-게끔/-게시리’의 ‘-게시리’는 꽤 많이 쓰이는 편이나 역시 방언 냄새가 짙다고 판단되어 표준어에서 버렸다. 더구나 이들과 같은 의미의 어미로 ‘-도록’이 널리 쓰이고 있어 ‘-게끔’ 하나만 추가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② ‘고치다/낫우다’의 ‘낫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다.

③ ‘다오/다구’는 어감의 차이를 동반하면서 다 쓰일 수도 있을 범하나 역시 ‘다오’가 정상적인 단어로 인정되어 ‘다구’는 버렸다.

④ ‘등나무/등칫’의 ‘등칫’은 ‘등나무’의 뜻으로는 버리나 ‘취방울과에 속하는 갈잎 덩굴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다.

⑤ ‘반나절/나절가웃’의 ‘나절가웃’은 ‘반나절’의 뜻으로는 버리나 ‘하루의  $\frac{3}{4}$ ’이라는 뜻으로는 표준어로 두었다.

⑥ ‘붉으락푸르락/푸르락붉으락’은 두 개가 다 인정될 법도 하나 ‘오락가락’이나 ‘들락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語順)이 있는 까닭에 더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취락펴락/펴락취락’의 경우 전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도 마찬가지다.

⑦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와 ‘주책없다/주책이다’의 ‘안절부절하다, 주책이다’는 부정사(否定辭)를 빼고 쓰면서도 의미는 반대가 되지 않고 부정사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특이한 용법인데, 오용(誤用)으로 판단되어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⑧ ‘-지만/-지만서도’의 ‘-지만서도’도 ‘-게시리’와 마찬가지로 꽤 널리 쓰이는 편이나 방언 냄새가 짙다 하여 표준어에서 제거하였다.

⑨ 참고로 앞에 예시된 단어의 뜻 풀이를 몇 개 덧붙인다.

㉠ ‘대장일’은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다루어 기구(器具)를 만드는 일’이다. ㉡ ‘며느리발톱’은 ‘사람의 새끼발톱 바깥 쪽에 붙은 작은 발톱이나, 새 또는 길짐승의 뒷발톱’이다. ㉢ ‘부각’은 ‘다시마를 기름에 튀긴 반찬’이다. ㉣ ‘빙충이’는 ‘똑똑지 못하고 어리석게 수줍어하기만 하는 사람’이다. ㉤ ‘살풀이’는 ‘타고난 살(煞)을 미리 막는 곳’이다. ㉬ ‘새양손이’는 ‘손가락의 모양이 새양처럼 생긴 사람’으로, ‘생인손’(제 24 항)과는 다른 말이다. ㉭ ‘안스럽다’는 ‘손아랫사람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도움을 받아 썩 미안하고 딱하다’의 뜻이다. ‘안’의 어원이 불분명하므로 ‘-스럽다’를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 ‘입담’은 ‘말재주나 말솜씨’를 뜻한다. ㉯ ‘자배기’는 ‘윤두가 과히 높지 않고 아가리가 둥글넓적한 질그릇’이다. ㉺ ‘짓고맹’은 ‘노름 방식의 하나’다. ㉻ ‘짧은작’은 ‘기장이 짧은 화살’이다.

## 제 5 절 복수 표준어

제 26 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복 수 표 준 어	비 고
가는-허리/잔-허리 가락-엿/가래-엿 가뭇/가물 가엿다/가엿다	가엿어/가여워, 가엿은/가여운
감감-무소식/감감-소식 개수-통/설거지-통	'설것다'는 '설거지-하다'로
개숫-물/설거지-물 갱-엿/검은-엿 -거리다/-대다 거위-배/횃-배 것/해 게올러-빠지다/게올러-터지다 고깃-간/푸줏-간	가물-, 출렁-  내~, 네~, 뉘~  '고깃-판, 푸줏-판, 다림-방'은 비표준어임.
꼼꼼/꼼꼼-이 관계-없다/상관-없다 교정-보다/준-보다 구들-재/구재 귀퉁-머리/귀퉁-배기 극성-떨다/극성-부리다 기세-부리다/기세-피우다 기승-떨다/기승-부리다 깃-저고리/배내-옷/배넛-저고리 꼬까/매매/고까 꼬리-별/살-별 꽃-도미/불-뚝 나귀/당-나귀 날-걸/세-불	'귀퉁이'의 비어임.          ~신, ~옷
내리-글씨/세로-글씨 념쿨/명쿨 념/쪽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느리-광이/느림-보/늘-보	율관의 짤발 다음의 셋째 발  '명쿨'은 비표준어임. 동~, 서~

늦-모/마냥-모  
 다기-지다/다기-차다  
 다달-이/매-달  
 -다마다/-고말고  
 다박-나룻/다박-수염  
 닭의-장/닭-장  
 멧-돌/뿔-돌  
 덧-창/겉-창  
 독장-치다/독판-치다  
 동자-기둥/쪼구미  
 돼지-감자/똥딴지  
 되우/되통/되게  
 두동-무니/두동-사니  
  
 뿔-갈망/뿔-감당  
 뿔-말/뿔-소리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들락-날락/들랑-날랑  
 댄-전/댄-청  
 땅-콩/호-콩  
 뿔-감/뿔-거리  
 -뜨리다/-트리다  
 뜯-것/뜯-귀신  
 마룻-줄/용총-줄  
  
 마-파람/앞-바람  
 만장-판/만장-중(滿場中)  
 만큼/만치  
 말-동무/말-벗  
 매-갈이/매-조미  
 매-통/목-매  
 먹-새/먹음-새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먹통/산-먹/산-먹통  
 면-치레/외면-치레  
 모-내다/모-심다  
 모쪼록/아무쪼록  
 목판-되/모-되  
 목화-씨/면화-씨  
 무심-결/무심-중  
 물-봉숭아/물-봉선화  
 물-부리/빨-부리

←만이앙-모

윗놀이에서, 두 동이 한  
 데 어울려 가는 말

깨-, 떨어-, 쏟-

돛대에 매어놓은 줄. '이  
 어줄'은 비표준어임.

'먹음-먹이'는 비표준어  
 임.

모-내기/모-심기

물-심부름 / 물-시중  
 물추리-나무 / 물추리-막대  
 물-타작 / 진-타작  
 민둥-산 / 벌거숭이-산  
 밑-층 / 아래-층  
 바깥-벽 / 발-벽  
 바른 / 오른(右)  
 발-모가지 / 발-목쟁이  
 버들-강아지 / 버들-개지  
 벌레 / 버러지

변덕-스럽다 / 변덕-맛다  
 보-조개 / 불-우물  
 보통-내기 / 여간-내기 / 예사-내기  
 불-따구니 / 불-통이 / 불-때기  
 부침개-질 / 부침-질 / 지짐-질

불뚱-앉다 / 등화-지다 / 등화-앉다  
 불-사르다 / 사르다  
 비발 / 비용(費用)  
 뽀두라지 / 뽀루지  
 살-뺨이 / 삼  
 삼살-개 / 삼사리  
 상두-꾼 / 상여-꾼

상-씨름 / 소-걸이  
 생 / 새양 / 생강  
 생-뿔 / 새양-뿔 / 생강-뿔  
 생-철 / 양-철

서럽다 / 싫다  
 서방-질 / 화냥-질  
 성글다 / 성기다  
 -(으)세요 / -(으)셔요  
 송이 / 송이-버섯  
 수수-깁 / 수수-대  
 술-안주 / 안주  
 -스레하다 / -스름하다  
 시늬-말 / 흉내-말  
 시새 / 세사(細沙)  
 신 / 신발  
 신주-보 / 득보(橫祿)

~손, ~쪽, ~편  
 '발목'의 비속어임.

'벌거지, 버러지'는 비표준어임.

'행-내기'는 비표준어임.  
 '불'의 비속어임.

'부침개-질'은 비표준어임.

삼-피

'상도-꾼, 향도-꾼'은 비표준어임.

'쇠뿔'의 형용

1. '서양-철'은 비표준어임.

2. '生鐵'은 '무쇠'임.

'설다'는 비표준어임.

거무-, 발그-



심술-꾸러기/심술-쟁이  
 씹쓰레-하다/씹쓰름-하다  
 아귀-세다/아귀-차다  
 아래-위/위-아래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앓음-새/앓음-앓음  
 알은-척/알은-체  
 애-같이/애벌-같이  
 애꾸눈-이/외눈-박이

양념-감/양념-거리  
 어금버금-하다/어금지금-하다  
 어기여차/어여차  
 어림-잡다/어림-치다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여저께/어제  
 언덕-바지/언덕-배기  
 얼렁-뚱땅/엄병-땡  
 여왕-벌/장수-벌  
 여쭙다/여쭙다  
 여태/입때  
 여태-껏/이제-껏/입때-껏  
 역성-들다/역성-하다

연-달다/잇-달다  
 옻-가락/옻-가래  
 옻-기름/옻-길금  
 옻-반대기/옻-자박  
 오사리-잡놈/오색-잡놈

옥수수/강냉이

왕골-기직/왕골-자리  
 외겹-실/외울-실/홀-실

외손-잡이/한손-잡이  
 욱심-꾸러기/욕심-쟁이  
 우레/천둥  
 우지/울-보  
 을러-대다/을러-매다  
 의심-스럽다/의심-적다  
 -이에요/-이어요  
 이틀-거리/당-고금

‘외대-박이, 외눈-퉁이’는 비표준어임.

‘여직’은 비표준어임.  
 ‘여직-껏’은 비표준어임.  
 ‘편역-들다’는 비표준어임.

‘오합-잡놈’은 비표준어임.  
 ~떡, ~묵, ~밥, ~튀김

‘홀겹-실, 울-실’은 비표준어임.

우렛-소리/천둥-소리

학질의 일종임.

<p>일일-이 / 하나-하나          일찌감치 / 일찌거니          입찬-말 / 입찬-소리          자리-옷 / 잠-옷          자물-쇠 / 자물-통          장가-가다 / 장가-들다</p> <p>재롱-떨다 / 재롱-부리다          제-가끔 / 제-각기          줌-처럼 / 줌-체</p> <p>줄-꾼 / 줄-잡이          증신 / 증매          짚-단 / 짚-못          쪽 / 편          차차 / 차츰          책-씻이 / 책-거리          척 / 체          천연덕-스럽다 / 천연-스럽다          철-따구니 / 철-딱서니 / 철-딱지          추어-올리다 / 추어-주다</p> <p>축-가다 / 축-나다          침-놓다 / 침-주다          통-꼭지 / 통-젓          파자-쟁이 / 해자-쟁이          편지-투 / 편지-틀          한턱-내다 / 한턱-하다          해웃-값 / 해웃-돈          혼자-되다 / 홀로-되다          흙-가다 / 흙-나다 / 흙-지다</p>	<p>‘서방-가다’는 비표준어임.</p> <p>‘줌-체로, 줌-해선, 줌-해’는 비표준어임.</p> <p>오른~, 왼~</p> <p>모르는~, 잘난~</p> <p>‘철-때기’는 비표준어임.          ‘추켜-올리다’는 비표준어임.</p> <p>통에 붙은 손잡이          점치는 이</p> <p>‘해우-차’는 비표준어임.</p>
--	---

**해설** 제 18 항에서와 같은 정신으로 복수 표준어를 규정한 것이다. 종래에는 ‘출렁거리다/출렁대다’의 ‘-거리다/-대다’가 다 널리 쓰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다’만을 표준어로 삼았었는데 이번에는 둘을 다 표준어로 삼아 국어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표준어가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산물이라는 관념을 불식시키도록 하였다.

① ‘가뭇/가물’ 중에서는 ‘가뭇’이 점점 더 큰 세력을 얻어 가고 있으나 ‘가물에 콩나듯 한다’에서 보듯 ‘가물’도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

아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② ‘가엿다/가엷다’는 활용형에서 ‘아이, 가엿어라’와 ‘아이, 가여워’가 다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서럽다/씁다’나 ‘여쭙다/여쭙다’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 다 같은 근거에 의해서다. ‘서럽게 운다’와 ‘씁게 운다’, ‘여쭙워 보아라’와 ‘여쭙어 보아라’가 다 쓰이고 있는 것이다.

③ ‘늦모/마냥모’의 ‘마냥모’는 종래 ‘만이앙(晩移秧)-모’에서 온 말이라 하여 ‘만양모’로 적었던 것인데 이번에 원형을 살리지 않고 발음대로 표기를 고쳤다.

④ ‘되우/되통/되게’의 ‘되우’는 이제 그 쓰임이 활발치 못한 형편이기는 하나 고어로 처리하기에는 이르다 하여 복수 표준어의 하나로 인정한 것이다.

⑤ ‘-뜨리다/-트리다’는 ‘-거리다/-대다’와 마찬가지로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이들 사이의 어감의 차이가 있는 듯도 하나 그리 뚜렷하지 않다.

⑥ ‘-(으)세요/-(으)셔요, -이예요/-이어요’에서 전통 어법은 ‘-(으)세요, -이예요’였는데, 광복 후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으)셔요, -이어요’형을 씀으로써 특히 젊은 층에 그것이 상당히 보편화하였다. 그리하여 대답소리 ‘네’와 함께 비표준어로 돌려졌던 전통 어법을 이번에 되살릴 때, 인위적인 교과서 어법도 복수 표준어로 흡수하기로 한 것이다.

⑦ ‘신발’은 단음절인 ‘신’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모호함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비’를 ‘빗자루’라 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말로서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실화한 것이다. ‘신류 수출’보다는 ‘신발류 수출’이라 함이 특히 음성 언어의 경우 뜻 전달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⑧ ‘알은-척/-체’의 ‘알은’은 ‘르’ 불규칙 용언이므로 ‘안’으로 해야 마땅할 것이로되, ‘알은’으로 굳어 버린 관용을 존중해서 ‘알은’형을 그대로 둔 것이다.

⑨ ‘우레/천둥’의 ‘우레’는 본래가 ‘울다’의 어간 ‘울-’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어느 결에 한자어식 표기로 바뀌어 ‘우뢰(雨雷)’라 써서 왔던 것이다. 이번 규정에서는 고어에도 ‘우레’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우레’로 되돌려 처리한 것이다.

⑩ 참고로 위에 예시된 단어의 뜻 풀이를 몇 개 보인다.

㉠ ‘기세부리다/기세피우다(氣勢~)’는 ‘남에게 자기의 기운과 세력을 드러내 보이다’의 뜻이다. ㉡ ‘기승떨다/기승부리다(氣勝~)’는 ‘성미가 억척스러워 남에게 굽히지 않는 성질을 부리다’의 뜻이다. ㉢ ‘다기지다/다기차다(多氣~)’는 ‘보기보다 당차서 좀처럼 겁을 내지 아니하다’의 뜻이다. ㉣ ‘다박나룻/다박수염’은 ‘다보록하게 난 수염’이다. ㉤ ‘동자기둥(童子~)/쪼구미’는 ‘들보 위에 세워 다른 들보를 받쳐 주는 짧은 기둥’이다. ㉥ ‘뜯것/뜯귀신’은 ‘떠돌아 다니는 못된 귀신’이다. ㉦ ‘마파람/앞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 ‘매갈이/매조미(~糙米)’는 ‘겉벼를 매통으로 걸꺼풀만 벗긴 쌀’이다. ㉨ ‘매통/목매’는 ‘둥근 통나무 두 짝으로 만든 나무매로, 곡식의 걸꺼풀을 벗길 때 쓰는 기구’이다. ㉩ ‘떡통/산떡/산떡통’은 ‘살아 있는 동물의 목구멍’이다. ㉪ ‘면치레/외면치레(外面~)’는 ‘속은 어쩔든 겉으로만 꾸며 체면을 닦는 일’이다. ㉫ ‘물타작/진타작(~打作)’은 ‘벼를 베어 채 마르기도 전에 떠는 일’이다. ㉬ ‘불뚱았다/등화았다(燈火~)’는 ‘촛불이나 등잔불의 심지 끝에 영긴 덩어리가 빨갛게 타다’의 뜻이다. ㉭ ‘아귀세다/아귀차다’는 ‘마음이 꾀꾀하여 남에게 잘 꺾이지 아니하다’의 뜻이다. ㉮ ‘입찬말/입찬소리’는 ‘분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희뻔하게 장담하는 소리’다. ㉯ ‘책씻이/책거리(冊~)’는 ‘글방에서 읽던 책을 다 떼었을 때 스승과 동점들에게 한턱을 내는 일’이다. ㉺ ‘편지투/편지틀(便紙~)’은 ‘편지를 쓸 때에 참고하도록 모범적인 편지를 모은 책’이다. ㉻ ‘해웃값/해웃돈’은 ‘술좌석에서 치르는 화대(花代)’다.

## 제 2 부 표준 발음법

### 제 1 장 총 칙

**제 1 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표준어의 발음법에 대한 대원칙을 정한 것이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라는 근본 원칙에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법을 정한다는 것은 표준어의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 1 장 제 1 항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값[價]’에 대하여 ‘값, 값만, 값이, 값을, 값에’ 등은 [갑, 감만, 갑씨, 갑쓸, 갑씨] 등으로 서울말에서 발음되는데, 바로 이러한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것이다. (제 14 항 참조.) 또 하나의 예를 보이면, 겹받침 ‘리’의 발음은 체언의 경우 ‘닭이[달기], 닭을[달글]’ 등과 같이 모음 앞에서 본음대로 ‘리’를 모두 발음하지만 ‘닭도[닥또], 닭과[닥파]’ 등과 같이 자음 앞에서는 ‘리’를 탈락시키면서 ‘기’만을 발음하는데, 용언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리’ 중에서 발음되는 자음을 달리한다. ‘늡다’를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        |
|----------|----------|--------|
| ① 늡은[늘근] | 늡으면[늘그면] | 늡어[늘거] |
| ② 늡고[늘꼬] | 늡거나[늘꺼나] | 늡게[늘께] |

## ③ 늣소[늣쏘]                  늣더니[늣떠니]                  늣지[늣찌]

즉, ①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본음대로 ‘리’를 모두 발음하고, ②와 같이 ‘ㄱ’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리’만을 발음하며, ③과 같이 ‘ㄱ, ㄷ, ㅈ’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ㄱ’만을 발음하는 것이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이다. 이 실제 발음을 그대로 표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다. (제 11 항 참조.)

그런데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실제의 발음에서는 여러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조건을 이어서 제시하였다. 예컨대 서울의 어떤 젊은이나 어린이는 소리의 길이를 구별하지 않고서 ‘밤[夜]’과 ‘밤[粟]’을 모두 짧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장년층 이상에서는 소리의 길이를 인식하면서 구별하여 발음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리의 높이나 길이를 구별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게 하였다. (제 6 항 참조.)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 이외에 다시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서 어법에 맞춘다는 것과 맞먹는 조건이다. 말하자면 국어의 규칙 내지는 법칙에 따라서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單音節) 용언 어간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짧게 발음한다. 이는 지극히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짧게 발음하는 어법을 규정화하여 표준 발음법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알고[알 : 고], 알아[아라]’와 같이 ‘곱다[곱 : 따], 고와[고와]’가 표준 발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다만’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발음을 따르면서 어법상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제 7 항 참조.)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법을 정함에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맛있다’는 실제 발음에서는 [마싣따]가 자주 쓰이나 두 단어 사이에서 받침 ‘ㄱ’을 [ㄷ]으로 발음하는 [마딛따]가 오히려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

려하여 [마딤따]를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정하되, [마싯따]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제 15 항 참조.)

## 제 2 장 자음과 모음

제 2 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 개로 한다.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해설** 19 개의 자음을 위와 같이 배열한 것은 일반적인 한글 자모의 순서에다가 국어 사전에서의 자모 순서를 고려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 4 항 붙임 2 참조.)

이들 자음의 발음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입술소리	혀끝소리	구 개 음	연구개음	목청소리
예사소리	ㅂ	ㄷ, ㅅ	ㅈ	ㄱ	ㅎ
거센소리	ㅃ	ㅌ	ㅊ	ㅋ	
된소리	ㅃ	ㄷ, ㅅ	ㅉ	ㄱ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이들 자음을 나타내는 자모로 표기된 경우에 그 자모에 해당되는 자음으로 발음한다. ‘쌀’을 발음할 때에 [살]과 같이 하면 되지 않는다. 표기와 달리 발음하는 경우에는 이 표준 발음법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발음하여야 한다. 예컨대 ‘곱돌’을 발음할 때에는 [곱돌]로 발음하지 않고 표준 발음법 제 23 항의 ‘된소리되기’ 규정에 따라 [곱똥]로 발음하고, ‘밭이’는 제 17 항의 “밭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란 규정에 따라 [바치]로 발음한다.

**제 3 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 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ㅛ ㅝ ㅞ ㅟ ㅠ ㅡ ㅣ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ㅣ ㅿ ㅿ

**해설** 표준어의 단모음(單母音)과 이중모음을 전부 보인 것이다. 이의 배열 순서도 자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한글 자모의 순서와 국어 사전에서의 자모 순서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제 4 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ㅛ, ㅝ'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해설** 제 3 항에서 제시된 표준어의 모음들 중에서 우선 단모음을 추려 배열한 것이다. 국어의 단모음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주장들이 있어 왔고 방언과 세대에 따라 단모음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어의 단모음을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이들 모음의 체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전 설 모 음		후 설 모 음	
	평 순	원 순	평 순	원 순
고 모 음	ㅣ	ㅓ	ㅡ	ㅜ
중 모 음	ㅕ	ㅛ	ㅑ	ㅗ
저 모 음	ㅓ		ㅏ	

위에 제시한 모음 체계로부터 각각의 모음을 발음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예컨대 [ㅏ]는 후설평순모음이면서 저모음으로 발음된다. 즉 입을 자연스럽게 벌리면서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고 발음하면 [ㅏ]란 모음이 발음된다. 후설평순모음이면서 고모음인 [ㅡ]는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평평하게 하고서 혀의 뒤쪽을 높여 발음하는 모음이다. 그런데 후설평순모음이면서 중모음인 [ㅑ]는 긴소리일 경우에 혀를 좀 높여 [ㅡ]의 위치에 가까운 모음으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말하자면 긴소리로서의 [ㅑ]는 [ㅡ]와 짧은 [ㅑ]와의 중간 모음인 올린 'ㅑ'로 하는 발음이 교양 있는 서울말의 발음이다. '걸다, 더럽다, 텅다, 멀다, 번지다, 썰다, 얻다, 얼다, 적다, 절다, 젊다, 험다' 등의 첫째 음절이 긴소리인데, 이 때에 올린 'ㅑ'로 발음한다. '거리(距離), 거머리, 널, 덜, 번민, 벌[蜂], 설, 섬[鳥], 얼, 전화, 헌법, 형





지+어 → 저[저]      찌+어 → 쩌[찌]      치+어 → 처[처]

다지+어 → 다저[다저]      살찌+어 → 살쨌[살쨌]      바치+어 → 바쳐[바쳐]

그리고 ‘돋치+어 → 돋쳐[돋쳐], 굳히+어 → 굳혀[구쳐], 잊히+어 → 잊혀[이쳐], 붙이+어 → 붙여[부쳐]’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2. ‘키’는 본음대로 [키]로 발음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 례’ 이외의 경우에는 [계]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이 실제의 발음까지 고려하여 [계]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한글 맞춤법 제 8 항 참조.)

계산[계 : 산~계 : 산]      통계[통 : 계~통 : 계]

폐단[폐 : 단~폐 : 단]      밀폐[밀폐~밀폐]

혜성[혜 : 성~혜 : 성]      은혜[은혜~은혜]

다만 3. 표기상에서 자음을 엮고 있는 ‘니’는 표기와는 달리 [ㅣ]로 발음하고 [니]나 [ㄴ]로는 발음하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 제 9 항 참조.)

흰무리[힌무리]      희미하다[히미하다]      유희[유히]

오늬[오니]      하늬바람[하니바람]      보늬[보니]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 40 항에서 역사적 표기였던 ‘긔차’ 등을 ‘기차’로 표기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현실음을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음을 엮은 ‘니’가 표기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발음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4. 이는 현실음을 고려한 허용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니]로 발음한다. 이는 위의 [다만 3]의 규정과 어긋나는 듯이 보이나, ‘무늬’는 [무니]로 발음하고 ‘문의(問議)’는 [무 : 늬]가 원칙이고 [무 : 니]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한자어에서 ‘희’는 언제나 [히]로 발음이 되는데, ‘문의(問議)’처럼 받침이 ‘의’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음절에서는 연음시켜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며 [ㅣ]로 발음함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원 칙	허 용
성의(誠意)	[성의]	[성이]
내의(內衣)	[내 : 의]	[내 : 이]

관형격 조사 ‘의’도 [니]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던 15세기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의/이’ 두 형식이 관형격 조사로 쓰이었으나 ‘으’가 없어지면서 표기상에서 ‘이’가 없어지고 ‘의’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표준어로서의 ‘의’ 이외에 방언에서는 [ㅣ], [ㅡ] 등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의 계통인 [개], [해]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서울 내지는 중부 지방의 일상 회화에서는 [개]로 발음되는 일이 많아 이를 고려하여 ‘의’를 [개]로 발음함도 허용한 것이다. 표기와 발음이 1 대 1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로 표기하여 놓고서 그 본음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개]로 발음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이어서 많은 논란 끝에 허용 규정으로 덧붙게 된 것이다.

	원 칙	허 용
강의(講義)의	[강 : 의의]	[강 : 이의 ~ 강 : 이에]

### 제 3 장 소리의 길이

**제 6 함**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눈보라[눈 : 보라]    말씨[말 : 씨]            밤나무[밤 : 나무]    많다[만 : 타]  
 멀리[멀 : 리]            벌리다[벌 : 리다]
- (2) 첫눈[천눈]            참말[참말]            쌍동밤[쌍동밤]    수많이[수 : 마니]  
 눈멀다[눈멀다]    떠벌리다[떠벌리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 [반 : 신    바 : 니 / 반 : 신    바 : 니]    재삼재사 [재 : 삼    재 : 사]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 / -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봐[봐 : ]    기어→겨[겨 : ]    되어→돼[돼 : ]  
 두어→뒤[뒤 : ]    하여→해[해 : ]

다만, ‘오아→와, 지어→저, 찌어→찌,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해설** 표준 발음으로 소리의 길이를 규정한 것으로, 긴소리와 짧은소리 두 가지만을 인정하되 그것도 단어의 제 1 음절에서만 긴소리를 인정하고 그 이

하의 음절은 모두 짧게 발음함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복합어에서도 (1)은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긴소리를 가진 경우를 보인 것이다. ‘눈[눈:]][雪], 말[말:]][言], 밤[밤:]][栗)’은 물론이며 ‘눈몽치, 눈보라, 눈사람’ 같은 복합어에서의 ‘눈’도 역시 긴소리로 발음하고, ‘말동무, 말소리, 말싸움, 말씨, 말장난’ 등의 ‘말’도 모두 긴소리로 발음하며, ‘밤꽃, 밤나무, 밤밥, 밤송이, 밤알, 밤콩’ 등의 ‘밤’도 모두 긴소리로 발음한다. ‘멀다’ 이외에 파생어인 ‘멀리’의 ‘멀’도 그렇고, ‘벌다’ 이외에 ‘벌리다’의 ‘벌’도 그렇다.

(2)의 예들은 본래 긴소리였던 것이 복합어 구성에서 제 2음절 이하에 놓인 것들로서 이 경우에는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난다는 원칙에 따라 짧게 발음하는 것들이다. 즉 ‘눈[눈:]’은 긴소리로 발음하지만, ‘첫눈’에서는 ‘눈’이 첫음절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긴소리의 [천눈:]으로 발음하지 않고 짧게 [천눈]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눈[눈:]	-눈[눈]	(첫눈, 밤눈, 진눈깨비, 싸락눈, 함박눈)
말[말:]	-말[말]	(참말, 거짓말, 서울말, 시골말, 중국말)
밤[밤:]	-밤[밤]	(군밤, 찢밤, 쪽밤, 꿀밤)
벌[벌:]	-벌[벌]	(샛벌, 저녁벌, 벌똥벌)

‘많이’는 독립적으로 발음할 때에 [마:]니]로 발음하지만, ‘수많이’에서는 짧게 발음한다. ‘말(이) 많다’의 경우에는 두 단어로 인식할 때에는 [말:]만:]타]로 발음함이 원칙이나 한 단어로 인식할 때에는 (표기상으로도 붙여 쓴다) [말:]만타]로 짧게 발음함이 원칙이다. ‘낮설다, 눈멀다, 맥없다, 성내다, 침뱉다, 힘세다, 힘없다’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벌리다’의 첫음절은 긴소리로 발음하지만, ‘떠벌리다’의 ‘벌’은 짧게 하는데, ‘휘몰다, 떠돌다, 비웃다’ 등의 ‘몰-, 돌-, 웃-’도 마찬가지다.

나아가서 합성 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원칙에 따른다. 예컨대 ‘껴안다, 내뱉다, 빼내다, 던져넘다, 갈아대다, 몰아넣다, 죽여지내다’ 등의 둘째 동사의 첫음절은 본래의 긴소리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다만. 이와 같이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인정하는데, 때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긴소리로 발음되는 것만은 그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 : 신 바 : 니 ~ 반 : 신 바 : 니](半信半疑)’, ‘재삼재사[재 : 삼 재 : 사](再三再四)’ 등이 그 예들인데, 이 때에는 ‘반신 — 반의, 재삼 — 재사’처럼 두 단어와 같이 어느 정도로는 끊어서 발음할 수 있는 첩어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도 마찬가지다.

반관반민[반 : 관 반 : 민](半官半民)

선남선녀[선 : 남 선 : 녀](善男善女)

전신전화[전 : 신 전 : 화](電信電話)

그런데 같은 음절이 반복되어 두 음절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둘째 음절을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반반(半半)[반 : 반]

간간(間間)이[간 : 간-]

영영(永永)[영 : 영]

서서(徐徐)이[서 : 서-]

시시비비(是是非非)[시 : 시비비]

**붙임.** 용언의 단음절(單音節) 어간에 ‘-아/-어, -아라/-어라, -았다/-었다’ 등이 결합되는 때에 그 두 음절이 다시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는 긴소리로 발음한다. (한글맞춤법 제 34~38 항 참조)

① 이어 → 여[여:]      띠어 → 띠[띠:]      시어 → 셔[셔:]

② 주어 → 쥐[쥐:]      꾸어 → 꺾[꺾:]      쭈어 → 쭈[쭈:]

③ 하여 → 해[해:]      되어 → 돼[돼:]      뵈어 → 뵈[뵈:]

④ 쇠어 → 쇠[쇠:]      죄어 → 죄[죄:]      괴어 → 괴[괴:]

여기서 ①의 경우에는 흔히 축약된 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②에 준하여 함께 넣는다.

용언 활용의 경우는 아니더라도 피동·사동의 경우에 어간과 접미사가 축약된 형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긴소리로 발음한다. (한글 맞춤법 제 37 항 참조.)

싸이다 → 싸다[싸 : 다]

누이다 → 뉘다[뉘 : 다]

펴이다 → 께다[폐 : 다]

트이다 → 툼다[티 : 다]

쏘이다 → 췌다[쇠 : 다]

다만. 그런데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쨌, 치어 → 처’는 예외적으로 짧게 발음한다. 또 ‘가+아 → 가, 서+어 → 서, 켜+어 → 켜’처럼 같은 모음끼리 만나 모음 하나가 빠진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 제 34 항 참조.)

**제 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 : 따]—감으니[가므니]      밟다[밥 : 따]—밟으면[발브면]

신다[신 : 따]—신어[시너]      알다[알 : 다]—알아[아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다[끌 : 다]—끌어[끄 : 러]      뺏다[뺏 : 따]—뺏은[뺏 : 븐]

벌다[벌 : 다]—벌어[버 : 러]      썰다[썰 : 다]—썰어[써 : 러]

없다[업 : 따]—없으니[업 : 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 : 따]—감기다[감기다]      꼬다[꼬 : 다]—꼬이다[꼬이다]

밟다[밥 : 따]—밟히다[발피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 : 리다]      벌리다[벌 : 리다]      없애다[업 : 췌다]

(붙임) 다음과 같은 합성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 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쓴-살-같이      작은-아버지

**해설** 긴소리를 가진 용언 어간이 짧게 발음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것인데, 우리 말에서 가장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그 용언 어간은 짧게 발음한다.

안다[안 : 따]—안아[아나]

넘다[넘 : 따]—넘으면[너므면]

살다[살 : 다]—살아[사라]

밟다[밟 : 따]—밟아[발바]

답다[답 : 따]—답아[달마]

묻다[묻 : 따]—묻어[무리]

밟다[밥 : 따]—밟아[발바]

붓다[붓 : 따]—부어[부어]

물론 다음과 같이 받침이 없는 용언 어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괴다[괴 : 다] — 괴어[괴어]	취다[취 : 다] — 취어[취어]
피다[피 : 다] — 피어[피어]	뉘다[뉘 : 다] — 뉘어[뉘어]
쏘다[쏘 : 다] — 쏘아[쏘아]	쉬다[쉬 : 다] — 쉬어[쉬어]
호다[호 : 다] — 호아[호아]〔縫〕	쭈다[쭈 : 다] — 쭈어[쭈어]

위의 예들이 다시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는 이미 제 6 항〔붙임〕에서 보인 것처럼 긴소리로 발음한다.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같아 보이는 ‘-으오/-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이하게 발음된다.

안으오[아느오]	미우오[미우오]	사오[사 : 오] (살다)
밟으오[발브오]	물으오[무르오]	호오[호 : 오] (호다)

용언 어간이 다음절(多音節)일 경우에는 어미에 따라 짧게 발음하는 경우가 없다.

더럽다[더 : 럽따]	더러운[더 : 러운] (더럽히다[더 : 러피다])
걸치다[걸 : 치다]	걸쳐[걸 : 처] (걸다[걸 : 다])
줄리다[줄 : 리다]	줄러[줄 : 러] (줄다[줄 : 다])

그런데 용언 어간이 이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앞에서 규칙적으로 짧게 발음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들이 있다.

작은[자 : 근] — 작아[자 : 가]	적은[저 : 근] — 적어[저 : 거]
먼[먼 : ] — 멀어[머 : 러]	얼은[어 : 든] — 얼어[어 : 더]
웃은[우 : 슨] — 웃어[우 : 서]	엷은[열 : 븐] — 엷어[열 : 버]
끈[끈 : ] — 끌어[끄 : 러]	써[써 : ] — 써어[써 : 러]
번[번 : ] — 벌어[버 : 러]	

2. 단음절 용언 어간의 피동·사동형은 일반적으로 짧게 발음한다.

안기다[안기다]	웁기다[웁기다]	알리다[알리다]
쏘이다[쏘이다]	울리다[울리다]	죄이다[죄이다]

넘기다[넘기다]      떼이다[떼이다]

다만.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앞에서도 예외적으로 긴소리를 유지하는 용언 어간들의 피동·사동형의 경우에 여전히 긴소리로 발음된다.

끌리다[끌 : 리다]      벌리다[벌 : 리다]      웃기다[웃 : 끼다]  
 썰리다[썰 : 리다]      없애다[엷 : 썰다]

**붙임.** 용언 활용형을 가진 합성어 중에는 그러한 활용형에서 긴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합성어에서는 짧게 발음하는 예들이 더러 있어서 이를 보인 것이다. 즉 ‘밀물, 썰물, 쏘살같이, 작은아버지’의 ‘밀, 썰, 쏘, 작은’은 활용형으로서는 긴소리로 발음하지만, 이들 합성어에서는 짧게 발음한다. ‘작은집, 작은창자……’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합성어가 다 그런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먼동, 헌데’ 등의 ‘먼, 헌’은 활용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긴소리로 발음한다.

이상의 제 7 항은 단음절의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짧게 발음하는 것과 그 예외들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체언의 곡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체언은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관계없이 언제나 본래의 긴소리대로 발음한다.

눈[眼]이[누니]	눈[雪]이[누 : 니]
밤[夜]이[바미]	밤[栗]이[바 : 미]
발[足]이[바리]	발[簾]이[바 : 리]
성(城)이[성이]	성(姓)이[성 : 이]

그런데, 둘 또는 셋 이상의 단어들을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뒷자리에 놓인 체언은 긴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이 밤이[이바미] ([밤 : ])  
 그 사람도[그사람도] ([사 : 람])  
 저 오리는[저오리는] ([오 : 리])



강조해서 말할 때에 “그 사람이[그사:라미] 그럴 수가!”, “빙그레[빙그레:] 웃니?” 등과 같이 긴소리로 발음하더라도 그러한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는 표준 발음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사전에서도 표시하지 않는다.

## 제 4 장 받침의 발음

**제 8 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음절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자음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훈민정음’에서는 ‘ㅅ’이 하나 더 있어서 8종성(終聲)이었는데, 그 뒤에 ‘ㅅ’이 ‘ㄷ’으로 실현됨으로써 현대 국어에서는 7개가 되었다. 이 7개의 자음으로 음절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제 9 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9 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닭다[닥따]	키웁[키웁]	키웁과[키웁과]	웃[온]
웃다[운:따]	있다[읷따]	젓[질]	빚다[빚따]
꿏[핀]	쫓다[쫓따]	숯[숯]	뺏다[뺏:따]
얏[얏]	뒸다[뒸따]		

**해설** 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앞에서 ‘ㄱ, ㅋ’, ‘ㅅ, ㅆ, ㅈ, ㅊ, ㅌ’ 및 ‘ㅍ’이 각각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받침 ‘ㄱ, ㅋ’은 받침 ‘ㄱ’과 같이 [ㄱ]으로 발음하고 받침 ‘ㅅ, ㅆ, ㅈ, ㅊ, ㅌ’은 받침 ‘ㄷ’과 같이 [ㄷ]으로 발음하며, 받침 ‘ㅍ’은 받침 ‘ㅂ’과 같이 [ㅂ]으로 발음한다.

박[박] 밖[박] 부엌[부엌] 꺾다[꺾따] 닭다[닥따]  
 낮[날] 낮[날] 낮[날] 낮다[날:따] 낮다[날따] 있었다[이쑤따]  
 날[날:] 밭[밭] 받다[받따] 말다[말따] 뺏다[뺏:따]  
 집[집] 짚[집] 집다[집따] 곱다[곱:따] 짚다[집따]

받침 ‘ㄴ, ㄹ, ㅁ, ㅇ’은 변화 없이 본음대로 각각 [ㄴ, ㄹ, ㅁ, ㅇ]으로 발음된다. 그리하여 제 8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음절말 위치에서 7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셈이다.

제 10항 겹받침 ‘ㄲ’, ‘ㄴ’, ‘래, ㄹ, ㅍ’,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과]	앉다[안따]	여덟[여덜]
넋다[넉따]	외곶[외골]	핥다[할따]	값[갑]
없다[업:따]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넋-’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1) 밟다[밥:따]      밟소[밥:쏘]      밟지[밥:찌]      밟는[밥:는→밤:는]  
 밟게[밥:께]      밟고[밥:꼬]

(2) 넋-죽하다[넙주카다]      넋-둥글다[넙뚱글다]

**해설** 두 개의 자음으로 된 겹받침 가운데, 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앞에서 ‘ㄲ’은 [ㄱ]으로 ‘ㄴ’은 [ㄴ]으로 발음되고 ‘래, ㄹ, ㅍ’은 [ㄹ]로 발음되며, ‘ㅂ’은 [ㅂ]으로 발음됨을 규정한 것이다. 겹받침에서 둘째 받침이 탈락하는 경우다.

몫[목]	몫도[목또]	몫까지[목까지]
엎다[언따]	엎지[언찌]	엎고[언꼬]
얹다[얹:따]	얹지[얹:찌]	얹고[얹:꼬]
훔다[훔따]	훔지[훔찌]	훔고[훔꼬]

‘래’은 ‘한 곶으로 [한골쓰로], 외곶으로[외골쓰로]’와 같은 경우에 쓰인다.

다만, 받침 ‘래’은 일반적으로 ‘여덟[여덜], 얹고[얹:꼬]’와 같이 [ㄹ]로 발음하는데, 다만 ‘밟다’만은 ‘밟다[밥:따], 밟지[밥:찌], 밟게[밥:께]’ 등과 같이 [ㅂ]으로 발음되는 예외적인 것이다. 따라서 ‘밟는’도[밤:는]으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 되고, [발:른]은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 발음이 된다.

‘넋다’의 경우에도 [ㄹ]로 발음하여야 하나, 다만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에 ‘넋’으로 표기된 것은 [넙]으로 발음한다. ‘넋적하다[넙찌카다], 넋

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퐁글다]’ 등이 그 예들이다. [ㄹ]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아예 ‘넙따랗다, 넙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알따랗다, 알찍하다, 알팍하다’ 등과 같이 표기하도록 한글 맞춤법 제 21 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1 항과 함께 제 12 항에서 보인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규정은 결국은 자음 앞에서 겹받침의 어느 하나를 취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것인데, 현대의 우리 말에서는 세 개의 자음을 이어서 모두 발음할 수가 없고 두 개까지만 발음할 수 있는 구조상의 제약에 따름을 각각 규정한 것이다. 자음 앞에서의 겹받침의 발음은 세대에 따라 또는 방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상의 표준 발음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 11 항** 겹받침 ‘ㄹ리, ㄹ리, ㄹ리’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으로 발음한다.

닭[닥]	흑과[흑과]	맑다[막따]	늑지[늑찌]
삼[삼:]	젊다[점:따]	읍고[읍꼬]	읍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리’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말게[말께]	물고[물꼬]	얼거나[얼꺼나]
--------	--------	----------

**해설** 역시 겹받침에 대한 규정이다. 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 앞에서 겹받침 ‘ㄹ리, ㄹ리, ㄹ리’이 ‘ㄹ’을 탈락시키고 각각 [ㄱ, ㄴ, ㄷ]으로 발음함을 규정한 것이다. 겹받침에서 첫째 받침인 ‘ㄹ’이 탈락하는 경우다.

첩[척]	첩도[척또]	첩까지[척까지]
얹[암:]	얹도[암:도]	얹과[암:과]
닭다[담:따]	닭지[담:찌]	닭고[담:꼬]
읍다[읍따]	읍지[읍찌]	읍고[읍꼬]

다만. 그런데, ‘ㄹ리’은 위에 예시한 체언의 경우와는 달리 용언의 경우에는 뒤에 오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발음된다. 즉 ‘ㄷ, ㅈ, ㅅ’ 앞에서는 [ㄱ]으로 발음하되(①), ‘ㄱ’ 앞에서는 이와 동일한 ‘ㄱ’은 탈락시키고서 [ㄹ]로 발음한다(②).

① [ㄱ]으로 발음하는 경우

맑다[막따]	맑지[막찌]	맑습니다[막썬니다]
늑다[늑따]	늑지[늑찌]	늑습니다[늑썬니다]

## ② [ㄹ]로 발음하는 경우

맑게[말께]	맑고[말꼬]	맑거나[말꺼나]
늑게[늘께]	늑고[늘꼬]	늑거나[늘꺼나]

파생어들이인 ‘맑작맑작하다, 맑작거리다, 굶다랴다, 굶직하다, 굶적거리다, 늑수그레하다, 늑정어, 엷죽엷죽하다’ 등의 경우에도 ‘ㄱ’ 앞이 아니므로 역시 [ㄱ]으로 발음한다. [ㄹ]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제 21 항)에서 아예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등과 같이 ‘ㄹ’만을 받침으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 제 12 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하, 하)’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ㄷ]으로 발음한다.

놓고[노코]	종던[조:던]	쌓지[싸치]	많고[만:코]
안던[안던]	닭지[달치]		

- [붙임 1] 받침 ‘ㄱ(리), ㄷ, ㅌ(래), ㅌ(나)’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소리를 합쳐서 [ㅋ, ㅌ, ㅌ, ㄷ]으로 발음한다.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말형[마형]
좁히다[조피다]	넓히다[널피다]	꽃히다[꼬치다]	안히다[안치다]

-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ㅌ, ㅌ, ㅌ,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웃 한 벌[오탄벌]	낫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2. ‘ㅎ(하, 하)’ 뒤에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을 [ㅌ]으로 발음한다.

닿소[다쏘]	많소[만:쏘]	싫소[실쏘]
--------	---------	--------

3. ‘ㅎ’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논는]	쌓네[싼네]
--------	--------

- [붙임] ‘하, 하’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안네[안네]	안는[안는]	똥네[똥네→똥레]	똥는[똥는→똥른]
--------	--------	-----------	-----------

\* ‘똥네[똥네→똥레], 똥는[똥는→똥른]’에 대해서는 제 20 항 참조

4. ‘ㅎ(하, 하)’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놓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안은[아는]	닭아[다라]	싫어도[시러도]	

**해설** 받침 ‘ㅎ’은 그와 결합되는 소리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하기 때문에 받침 ‘ㅎ’에 관련된 것들을 편의상 한데 묶어 이 항에서 규정하였다.

1. 받침 ‘ㅎ’과 이 ‘ㅎ’이 포함된 겹받침 ‘ㄴㅎ, ㄹㅎ’ 뒤에 ‘ㄱ, ㄷ,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결합된 경우에는 ‘ㅎ+ㄱ→ㅋ, ㅎ+ㄷ→ㅌ, ㅎ+ㅈ→ㅊ’과 같이 축약시켜 각각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농고[노코]	농던[노턴]	농지[노치]
많고[만 : 코]	많던[만 : 턴]	많지[만 : 치]
알고[알코]	알던[알턴]	알지[알치]

받침 ‘ㅎ’은 현대어에서 용언 어간에만 쓰이기 때문에 위의 규정은 용언의 활용에만 적용된다. 그리하여 1에서는 용언의 경우만 예시하였다. 다만 ‘싫증’은 [실쫑]으로 발음한다.

**붙임 1.** 그런데 한 단어 안에서 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ㄱ, ㄷ, ㅂ] 다음에 ‘ㅎ’이 오는 경우에도 각각 둘을 축약하여 [ㅋ, ㅌ, ㅍ]로 발음한다. 이는 한자어나 합성어 또는 파생어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국화[구과]	정직하다[정 : 지카다]	박하다[바카다]
박하다[바키다]	읽히다[일키다]	말형[마형]
술하다[수타다]	긋하다[구타다]	잊히다[이치다]
엎히다[언치다]	입학[이팍]	급하다[그파다]
입히다[이피다]	밟히다[발피다]	

**붙임 2.** 나아가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시된 ‘웃 한 벌, 낮 한때, 꽃 한 송이’ 등이 그것인데, 다음의 경우들도 그 예들이 된다.

온갖 힘[온 : 가힘]	못 형벌[무형벌]	몇 할[머탈]
밤 한 사발[바판사발]	국 한 대접[구칸대접]	

물론 단어마다 끊어서 발음할 때에는 ‘웃 한 벌[온 한 벌]’과 같이 발음한다.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한다.

2. 받침 ‘ㅎ’이 ‘ㅅ’을 만나면 둘을 합쳐 [쓰]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이다.

끓습니다[끈쌔니다]

끓사오니[끈싸오니]

3. ‘ㄴ’으로 시작된 어미 ‘-는(다), -네, -나’ 등 앞에서 받침 ‘ㅎ’은 [ㄴ]으로 동화시켜 발음한다.

놓는[논는]

놓네[논네]

놓나[논나]

붙임. ‘ㄴ, ㄹ’ 뒤에 ‘ㄴ’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은 발음되지 않는데, 다만 ‘ㄹ’ 뒤에서는 ‘ㄴ’이 [ㄹ]로 발음된다. (표준 발음법 제 20 항 참조.)

끓는[끈는]

끓네[끈네]

끓나[끈나]

끓는[끌른]

끓네[끌네]

끓나[끌라]

4. 받침 ‘ㅎ, ㄴ, ㄹ’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될 때에는 그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넣은[너은]

쌓을[싸을]

짚으니까[찌으니까]

끓은[끄는]

많을[마 : 늘]

않으니까[아느니까]

옹은[오른]

싫을[시를]

끓으니까[고르니까]

쌓인[싸인]

끓일[끄닐]

끓이니까[끄리니까]

한자어나 복합어에서 모음과 ‘ㅎ’ 또는 ‘ㄴ, ㄹ, ㅇ, ㄹ’과 ‘ㅎ’이 결합된 경우에는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경제학(經濟學), 광어회(廣魚膾)’라든가 ‘신학(神學), 전화(電話), 피곤하다’, ‘임학(林學), 셈하다’, ‘공학(工學), 상학(商學), 경영학(經營學)’ 등의 경우가 그 예들이다. 그리고 다만 ‘실학(實學), 철학(哲學), 실하다, 팔힘’ 등과 같은 ‘ㄹ’과 ‘ㅎ’과의 결합에서는 ‘ㄹ’을 연음시키면서 ‘ㅎ’이 섞인 소리로 발음한다.

제 13항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깎아[까까]

웃이[오시]

있어[이씨]

낮이[나지]

꽃아[꼬자]	꽃을[꼬출]	꽃아[꼬차]	밭에[바테]
앞으로[아프로]	덜이다[더피다]		

**해설** 이 규정은 받침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하는 연음(連音)을 뜻하는 것인데, 홑받침의 경우다.

부엌이[부어키]	낮을[나출]	밭의[바티]	무릎에[무르페]
꺾어[꺼꺼]	쫓을[쫓출]	같은[가튼]	짚으면[지프면]
섞여[서껴]	높여[노펴]		

이 경우에 연음되는 받침은 본음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제 12 항에서 규정한 ‘ㅎ’의 탈락이라든가 제 17 항에서 보일 구개음화라든가 불규칙 활용과 같은 예외들이 있다.

제 14 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넉씨]	앉아[안자]	닭을[달글]	꺾어[질머]
끓이[골씨]	할아[할타]	을어[을퍼]	값을[갑쓸]
없어[업:씨]			

**해설** 이 항도 제 13 항과 같은 연음에 대한 규정인데, 겹받침의 경우다.

닭이[달기]	여덟을[여덜블]	삶에[살:메]
읽어[일거]	밟을[발블]	웁은[울문]

말하자면 첫째 받침은 그대로 받침의 소리로 발음하되 둘째 받침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컨대, ‘닭이[달기], 통닭을[통달글]’과 같은 것이다. 이 때에 연음되는 받침의 소리는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나, 제 13 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예외가 있다(앉아[아라], 끓어[끄너], 훑이다[훑치다]). 그리고 겹받침 ‘ㄱ, ㄴ, ㅂ’의 경우에는 ‘ㅅ’을 연음하되 된소리 [ㅆ]으로 발음한다.

몫이[목씨]	넋을[넉쓸]
끓이[골씨]	외곶으로[외골쓰로]
값이[갑씨]	값에[갑세]

없이[업 : 씨]

없으면[업 : 쓰면]

제 15 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들로 시작되는 실질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밭]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덥다]  
 곁웃[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 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해설** 이 규정은 받침 있는 단어(또는 접두사)와 모음으로 시작된 단어와의 결합에서 발음되는 받침의 소리와 연음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밭 아래’는 ‘밭’을 일단 독립형인 [밭]으로 발음하고 다시 모음 앞에서 그 받침 소리 [ㄷ]을 연음하여 결국 [바다래]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 받침 뒤에 오는 모음으로 ‘ㅏ, ㅑ, ㅓ, ㅕ, ㅗ’로 한정시킨 이유는 ‘ㅣ, ㅑ, ㅓ, ㅕ, ㅗ, ㅛ, ㅝ, ㅟ’와의 결합에서는 ‘앞일 [암닐], 꽃잎 [꼰닙], 한여름 [한너름]’ 등과 같이 연음을 하지 않으면서 [ㄷ]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ㅛ, ㅝ, ㅟ’ 등을 들지 않은 것은 표준어에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조국애, 국외’ 같은 경우에는 연음시켜 발음해야 하고, ‘먼 외국’ 같은 경우에는 두 단어로 독립시켜 발음할 때에는 [먼 : 외국]과 같이 연음하지 않고, 한 마디로 발음할 때에는 [머 : 뇌국]과 같이 연음하여 발음한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딤따], [머딤따]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마신타], [머신타]도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도 원칙은 마찬가지다. 즉 독립형으로 쓰이는 받침의 소리로 위의 환경에서 연음한다. ‘값어치[가버치]’는 ‘10원 어치, 백불(\$) 어치, 팔 푼 어치’ 등을 고려하여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해석한 결과다. ‘어치’는 자립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사전에서 이를 접미사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제 16 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귄이[디그시]	디귄을[디그슬]	디귄에[디그세]
지읓이[지으시]	지읓을[지으슬]	지읓에[지으세]
치읓이[치으시]	치읓을[치으슬]	치읓에[치으세]
키읓이[키으기]	키읓을[키으글]	키읓에[키으게]
티읓이[티으시]	티읓을[티으슬]	티읓에[티으세]
피읓이[피으비]	피읓을[피으블]	피읓에[피으베]
히읓이[히으시]	히읓을[히으슬]	히읓에[히으세]

**해설** 한글 자모의 이름에 대한 발음 규정이다. 한글 자모의 이름은 첫소리와 끝소리 둘을 모두 보이기 위한 방식으로 붙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모음 앞에서 ‘디귄이[디그디], 디귄을[디그들]’ 등과 같이 발음하여야 하나, 실제 발음에서는 [디그시], [디그슬] 등과 같아 이 현실 발음을 반영시켜 규정화한 것이다. ‘꽃이[꼬시], 밤낮으로[밤나스로], 솥은[소슨], 무릎을[무르블], 부엌에[부어게]’ 등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보면 이 규정은 예외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한글 자모의 이름에 대한 발음은 맞춤법과 크게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붙인 근본 정신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전통성과 합리성에 어긋나면서 실제 발음만을 따른 결과다.

## 제 5 장 소리의 동화

제 17 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곧이듣다[고지듣따]	굳이[구지]	미담이[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밭이[바치]	벼훅이[벼훅치]
(불임)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불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해설** 이른바 구개음화에 대한 규정이다. 즉 받침 ‘ㄷ, ㅌ(ㅊ)’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면 연음하여 발음하되 ‘ㄷ, ㅌ’을 각각 [ㄷ, ㅊ]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예컨대 ‘밭은[바튼], 밭을[바틀], 밭에[바테]’와 같이 모음 앞에서 본음대로 연음시켜 발음하되, 다만 모음 ‘ㅣ’ 앞에서는 ‘밭이[바치], 밭이다[바치다], 밭입니다[바칩니다]’와 같이 받침 ‘ㅌ’을 구개음 [ㅊ]으로 바꾸어 연음시켜 발음하는 것이다. ‘해돋이[해도지], 날날이[난 : 나치], 훑이다[훑치다]’ 등도 마찬가지다. (한글 맞춤법 제 6 항 참조.)

붙임 ‘이’ 이외에 ‘히’가 결합될 때에도 받침 ‘ㄷ’과 합하여 [ㅊ]으로 구개음화하여 발음한다. 즉 ‘걸히다[거치다], 받히다[바치다]’ 등이 그 예다.

구개음화는 조사나 접미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고 합성어에서는 받침 ‘ㄷ, ㅌ’ 다음에 ‘이’로 시작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을 때에도 구개음화는 일어날 수 없다. 예컨대 ‘밭이랑[반나랑], 훑이불[훈니불]’ 등과 같이 ‘ㄴ’에 의해서 ‘ㅌ’이 [ㄴ]으로 발음된다.

제 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 ㅌ, ㄷ, ㅌ, ㅎ), ㅂ(ㅃ, ㅍ, ㅍ, ㅍ, ㅍ)’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국물[궁물]	깎는[깡는]	키움만[키움만]
뭉뭉이[몽목씨]	굶는[궁는]	훑만[홍만]	닫는[단는]
짓는[진 : 는]	웃맵시[온맵시]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죤는]	꽃망울[꼰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밤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밟는[밤 : 는]	읊는[음는]	없는[엄 : 는]	값매다[감매다]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훑 말리다[홍말리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밥 먹는다[밤멍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해설** ‘ㄴ, ㅁ’ 등의 비음 앞에서 받침의 소리 [ㄱ, ㄷ, ㅂ]이 각각 [ㅇ, ㄴ, ㅁ]으로 동화되어 발음됨을 규정한 것이다. 예컨대 ‘값만, 없는’은 우선 ‘ㅅ’을 탈락시키고서 ‘ㅁ, ㄴ’에 의하여 ‘ㅂ’이 [ㅁ]으로 역행동화되어 [감만], [엄 : 는]으로 발음된다.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ㅆ, ㅈ, ㅊ, ㅌ, ㅌ’ 받침은 ‘ㄴ, ㅁ’ 앞에서 모두 [ㄴ]으로 발음된다.

붙임. 위와 같은 환경만 주어지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비음으로 바

뀐다.

국 마시다[궁마시다]      옷 마르다[온마르다]  
입 놀리다[임놀리다]

제 19항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녁]      침략[침낙]      강릉[강능]      향로[향:노]  
대통령[대:통녕]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니]      협력[협녁→협녁]  
십리[십니→십니]

**해설** 한자어에서 받침 ‘ㅁ, ㅇ’ 뒤에 결합되는 ‘ㄹ’을 [ㄴ]으로 발음하는 규정이다. 본래 ‘ㄹ’을 첫소리로 가진 한자는 ‘ㄴ, ㄹ’ 이외의 받침 뒤에서는 언제나 ‘ㄹ’이 [ㄴ]으로 발음된다.

**붙임.** 받침 ‘ㄱ, ㅂ’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되는데, 그 [ㄴ] 때문에 ‘ㄱ, ㅂ’은 다시 [ㅇ, ㅁ]으로 역행동화되어 발음된다. 예컨대 ‘막론(莫論)’은 ‘[막논]→[망논]’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제 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괘령]

(2)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림기]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달는[달른]      뚫는[뚫른]      할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전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편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뵈노]      구근류[구근뉴]

**해설**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동화되어 발음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1)은 한자어의 경우이고 (2)는 합성어 또는 파생어의 경우와 ‘-(으)르는지’의 경우이다. 이상의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ㄴ’을 [ㄹ]로 발음한다. 물론 이 때에는 한 마디로 발음한다.

멜 나무[멜 : 라무]    갈 놈[갈롬]    바람 잣을 날[바람자즐랄]

붙임. ‘ㄹ, ㅍ’과 같이 자음 앞에서 [ㄹ]이 발음되는 용언 어간 다음에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그 ‘ㄴ’을 ‘ㄹ’로 동화시켜 발음한다. 즉 ‘않는[알른], 앓나[알라], 앓네[알레]’와 같이 발음한다. 홀반침 ‘ㄹ’ 다음에 ‘ㄴ’이 올 때에는 ‘아는, 아나, 아네’ 등과 같이 ‘ㄹ’이 탈락된 대로 표기하도록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 제 18 항 참조.)

다만. 한자어에서 ‘ㄴ’과 ‘ㄹ’이 결합하면서도 [ㄹ]로 발음되지 않고 [ㄴ]으로 발음되는 예들을 보인 것이다. ‘권력[꺠력]’에 대해서 ‘공권력 [공꺠 녉]’인 셈인데, 실제의 발음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기에 [ㄴ]으로 발음하는 단어와 [ㄹ]로 발음하는 단어는 개별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그 발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21 항**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 : 기](×[강 : 기])	옷감[온감](×[옥감])
있고[일꼬](×[익꼬])	꽃길[꼰길](×[꼭길])
젓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법[문뻬](×[뫼뻬])
꽃밭[꼰밭](×[꼭밭])	

**해설** ‘신문’을 때로는 역행동화된 [심문]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위치동화를 표준 발음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옷감’을 [온감, 옥감, 오감]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건습니다’를 [걸 : 씬니다, 거 : 씬니다]로 발음하기도 하며, ‘꽃밭’도 [꼰뻬, 꺠뻬, 꼬뻬]으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온감], [걸 : 씬니다], [꼰뻬]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음 앞에서 발음되는 반침에 대한 규정(특히 제 9 항)을 중시한 것이며, 수의적으로 역행동화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제 22 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해설**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될 때에 나

타나는 모음충돌에 대한 발음 규정이다. ‘되+어 → 되어’는 [되어]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때로 모음충돌을 피한 발음인 [되여]가 쓰이기도 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이 허용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오, 아니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 제 6 장 된소리되기

제 23 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ㅂ(ㅃ,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ㅌ,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빱]	깎다[깍따]	넋밭이[넋빠지]	샷돈[샷똥]
닭장[닥장]	침범[침뵤]	뵤대다[뵤뵤다]	웃고름[웃꼬름]
있던[인뵤]	꽃고[꼇꼬]	꽃다발[꼇따발]	낫설다[낫썰다]
밭갈이[밭까리]	솔전[솔쵸]	굽돌[굽똥]	뎡개[뎡깨]
엮집[엮쵸]	넙죽하다[넙쵸카다]	읍조리다[읍쵸리다]	
값지다[갑쵸다]			

**해설**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ㅂ(ㅃ, ㅍ, ㅍ, ㅍ)’ 뒤에서 ‘ㄱ, ㄷ, ㅂ, ㅌ, ㅍ’은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ㅍ]으로 각각 발음되는 된소리되기를 규정한 것이다. 한 단어 안에서나 체언의 곡용 및 용언의 활용에서나 위의 환경에서는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 24 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꼬]	껴안다[껴안따]	앉고[안꼬]	엮다[언따]
삼고[삼:꼬]	더듬지[더듬쵸]	닭고[담:꼬]	꺾지[꺾:쵸]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안기다	갑기다	굽기다	읍기다

**해설** 용언 어간의 받침이 ‘ㄴ(ㄴ), ㅁ(ㅁ)’일 때에도 뒤에 오는 ‘ㄱ, ㄷ, ㅌ, ㅍ’을 된소리인 [ㄲ, ㄸ, ㅆ, ㅍ]으로 각각 발음한다. 이는 용언 어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체언의 경우에는 ‘신도[신도], 신과[신과]’라든가

‘바람도[바람도], 바람과[바람과]’ 등과 같이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하지 않는다.

다만, ‘ㄴ, ㄹ’ 받침을 가진 용언 어간의 피동·사동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않아서 ‘안기다[안기다], 남기다[남기다], 굶기다[굶기다]’와 같이 발음한다. 일종의 활용 형식인 용언의 명사형의 경우에는 ‘안기[안:끼], 남기[남:끼], 굶기[굶끼]’와 같이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 25항 어간 받침 ‘ㄹ,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넓게[널게]                  할다[할따]                  홀소[홀쏘]                  떨지[떨:찌]

**해설**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겹받침 ‘ㄹ, ㅍ’ 다음에서도 뒤에 연결되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용언 어간에 한정되는 규정인데, 체언의 경우에는 ‘여덟도[여덜도], 여덟과[여덜과], 여덟보다[여덜보다]’처럼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받침 ‘ㄹ’의 경우에는 이미 제 12항에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을 겹받침에 한정시킨 것은 홑받침 ‘ㄹ’ 다음에서는 ‘알고, 알더니, 알지’와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 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뜨]                  말살[말쌀]  
 불소[불쏘](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쑹]                  물질[물질]  
 발전[발쩐]                  물상식[물쌍식]                  불세출[불세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해설** 한자어에서 받침 ‘ㄹ’ 다음에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 물건, 불복, 설계, 열기, 절기, 출고, 팔경, 활보’ 등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예들이 많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사전에서 그 발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한자가 겹친 첩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결결[결결](缺缺)                  별별[별별](別別)

제 27 항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수는]	할 적에[할찌게]	갈 곳[갈곳]
할 도리[할또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겅]	할밖에[할빠개]	할세라[할세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찌라도]	할지언정[할찌언정]
할진대[할찐대]		

**해설** 관형사형 ‘-ㄴ, -을’ 다음에서는 ‘ㄱ, ㄷ, ㅂ, ㅅ, ㅈ’을 각각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ㄴ’ 다음에 오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보조 용언일 경우에도 역시 그 다음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듯하다[할뜨타다] 할 법하다[할빠파다] 할 성싶다[할쌩쌩따]

**붙임.** 관형사형 어미와 같은 ‘-(으)ㄴ’로 시작되는 어미에서도 역시 ‘ㄴ’ 뒤에 오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각각 발음한다. 예컨대, ‘-(으)ㄴ거나, -(으)ㄴ세, -(으)ㄴ수록, -(으)ㄴ지, -(으)ㄴ진대’ 등이 그 예들이다. ‘-(으)ㄴ까, -(으)ㄴ꼬, -(으)ㄴ쑤냐’는 아예 된소리로 표기한다.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던’ 등 ‘ㄴ’ 받침을 가진 어미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간 사람[간사(;)람]	가는 사람[가는사(;)람]
가던 사람[가던사(;)람]	입는다[임는다]
입는데[임는데]	입는지[임는지]

제 28 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새]	손-재주[손째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속]
술-잔[술잔]	바람-결[바람겅]	그믐-달[그믐달]
아침-밥[아침빠]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달]  
강-줄기[강줄기]

등-불[등불]

창-살[창살]

**해설**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능상 사이시옷이 있을 만한 합성어의 경우에 된소리로 발음되는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시옷은 15세기의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관형격의 기능을 나타냈던 것이나, 현대 국어로 내려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서 사이시옷에 의한 된소리의 실현도 일정치가 않다. ‘나뭇집(나무를 파는 집)’과 ‘나무집(나무로 만든 집)’은 그런대로 관형격의 기능을 보여 주지만 ‘돌집[돌:집](돌로 지은 집)’은 관형격의 기능이 있을 수 없음에도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리하여 사이시옷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된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 30 항 참조.)

사이시옷이 표기상으로 드러난 경우에 그 사이시옷에 관련된 발음에 대한 규정은 제 30 항인데, ‘음의 첨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제 28 항과 분리시켜 배열하였다.

## 제 7 장 소리의 첨가

**제 29 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니불]

흔-이불[흔니불]

막-일[망닐]

삿-일[상닐]

맨-입[맨닙]

꽃-잎[꼴닙]

내복-약[내:봉냐]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캐널차]

늑막-염[능망념]

콩-엿[콩녘]

담-요[담:뇨]

눈-요기[눈뇨기]

영업-용[영업뇽]

식용-유[시공뉴]

국민-윤리[궁민눌리]

밤-웃[밤:눔]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검열[검:넬/거:멸]

울랑-울랑[울랑놀랑/울랑울랑]

금용[금뇽/그똥]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들-일[들:릴]	술-있[술립]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련]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한 일[한닐]	웃 입다[온닙따]	서른 여섯[서른녀섯]
3연대[삼년대]	먹은 엿[머근널]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	스물 여섯[스물려섯]
1연대[일련대]	먹을 엿[머글련]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사밀절]	송별-연[송:벼련]
등용-문[등용문]		

**해설** 한자어, 합성어 및 접두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을 첨가시켜 발음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 요소의 받침은 첨가된 ‘ㄴ’ 때문에 비음으로 발음된다. 예컨대 ‘짓이기다’는 ‘ㄴ’이 첨가되어 ‘짓-니기다’와 같이 되고 다시 [ㄴ] 앞에서 ‘짓’은 [진]이 되어 결국 [진니기다]로 발음하게 된다. ‘남존여비’는 ‘ㄴ’이 첨가되고 ‘ㄴ’에 의한 역행동화가 더 이상 불필요하여 [남존녀비]로 발음한다.

다만, 어떤 단어들은 위와 같이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기도 하지만, 표기대로 ‘ㄴ’ 첨가 없이 발음하기도 한다. ‘검열[검:녘/거:뎡]’ 같은 것이 그것인데, 특히 ‘이죽이죽, 야금야금, 올랑올랑’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기죽이기죽’은 ‘ㄴ’의 첨가 없이 발음하고, ‘야옹야옹[야옹냐옹]’은 ‘ㄴ’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따라서 ‘ㄴ’이 첨가된 경우에는 사전에서 그 발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ㄹ’ 받침 뒤에서 첨가되는 ‘ㄴ’은 [ㄹ]로 동화시켜 발음한다. 예컨대 ‘수원역’에서는 ‘ㄴ’을 첨가하여 [수원녁]으로 발음하지만 ‘서울역’에서는 [ㄹ]로 동화되어 [서울력]으로 발음한다. 만일 이러한 소리의 첨가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앞의 자음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절약[저략] 월요일[워료일] 목요일[모교일] 금요일[그묘일]

‘이글이글’ 같은 단어는 [이글리글/이그리글]의 두 가지 발음이 모두 가능하나, ‘유월 유두’는 [유월류두]로 발음한다. 따라서 ‘ㄹ’의 첨가도 사전에 표시되어야 한다.

**붙임 2.** 위와 같은 환경이지만 두 단어를 한 단어처럼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준한다. 예컨대 ‘한 일[한닐], 할 일[할릴]’ 같은 경우다. ‘잘 입다, 잘 익히다, 못 이기다, 못 잇다’ 등의 경우에는 ‘ㄴ’(또는 ‘ㄹ’)의 첨가 없이도 발음하는데, 이는 두 단어로 인식하고서 발음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때에도 ‘[자립따]’라든가 ‘[모디기다]’와 같이 연음하여 발음한다.

다만, ‘ㄴ, ㄹ’을 첨가하지 않고 발음하는 예들이다. ‘6·25[유기오]’뿐만 아니라 ‘8·15[파리로]’도 소리의 첨가 없이 발음한다.

이상은 한자어나 합성어 및 파생어 안에서 소리가 첨가되는 데에 대한 규정이었다. 그런데 ‘-이오?’(이것은 책이오?)를 줄여서 ‘-요?’라고 할 경우에는 ‘ㄴ’이나 ‘ㄹ’의 첨가 없이 받침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문-요?[무뇨]

답-요?[다묘]

물-요?[무료]

상-요?[상요]

**제 30 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넷가[내:가/넛:가]	셋길[새:길/센:길]	빨랫돌[빨래돌/빨랜돌]
콧등[코똥/콘똥]	깃발[기빨/길빨]	대팻밥[대:패뺨/대:핀뺨]
햇살[해쌀/헛쌀]	뱃속[배쓱/뱃쓱]	뱃전[배전/뱃전]
고갯짓[고개짚/고갯짚]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콘날→콘날]	아랫니[아랜니→아랜니]
뒷마루[뒷:마루→뒷:마루]	뱃머리[뱃머리→뱃머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갯닐→베갯닐]	갯잎[갯닙→갯닙]	나뭇잎[나뭇닙→나뭇닙]
도리갯열[도리갯닐→도리갯닐]	뒷웃[뒷:눈→뒷:눈]	

**해설** 1. 사이시옷이 표기된 경우의 그 발음에 대한 규정이다. 이 발음 규정을 정함에는 논란이 극히 심하였다. 예컨대 ‘넷가’의 발음을 [넛 : 까]로 할 것인가 [내 : 까]로 할 것인가, 또 ‘깃빨’의 경우 [긴빨]로 할 것인가 [기빨]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기빨]은 [긴빨] → [깁빨] → [기빨]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긴빨]을 표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기빨]과 [긴빨] 모두를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게 하였다. [깁빨]은 제 22 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ㄴ, ㄹ’ 같은 비음 앞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경우에는 ‘ㅅ → ㅈ → ㄴ’의 과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한다. 즉 ‘콧날’은 [콘날] → [콘날]의 과정에 따라 [콘날]로 발음된다. ‘뱃머리’의 경우에는 [뱀머리]가 표준 발음이 되고 위치동화까지 일어난 [뱂머리]는 제 22 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사이시옷 뒤에 ‘이’ 또는 ‘야, 여, 요, 유’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이 첨가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은 자연히 [ㄴ]으로 발음된다.

뒹일[뒹 : 널]      꺾잎[꺾넙]      도리꺾열[도리꺾넙]      뒹웃[뒹 : 눌]



## 제 2 편 어 휘 목 록

1. 이 목록은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다루어진 말들을 모은 것이다.
2. 표제어로 표준어뿐 아니라 비표준어도 수록하였다.
3.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복수 표준어 또는 대등한 말
  - ( 준말
  - 비표준어에 대한 표준어
  - × 비표준어
  - \* 비고란에서 다루어진 말
  - \*\* 해설에서 다루어진 말
4. 붙임표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



표제어	관련 단어	항
(7, 11)		
가는-허리	/잔-허리	26
가든-그리다		17
가락-옛	/가래-옛	26
**X가락-오락	→**오락-가락	25
가래-옛	/가락-옛	26
가루-약	X말약	21
X가리	→갈비	5
가물	/가뭇	26
가뭇	/가물	26
가엎다	/가엎다	26
가없다	/가엎다	26
가을-같이	X가을-카리	4
X가을-카리	→가을-같이	4
*가짓-부리		16
*가짓-불		16
X간	→칸	3
X갈모	→갓모	5
*갈모		5
X갈-범	→첩-범	25
갈비	X가리	5
~구이		
~찜		
갈빗-대		
감감-무소식	/감감-소식	26
감감-소식	/감감-무소식	26
갓모	X갈모	5
**갓-장이		9
**갓-쟁이		9

표제어	관련 단어	항
X강남-콩	→강남-콩	5
강남-콩	X강남-콩	5
강냉이	/옥수수	26
~떡		
~묵		
~밥		
~튀김		
**강팍-하다		10
**개다		16
X개다리-밥상		22
개다리-소반		22
개수-통	→개다리-소반	26
개숫-물	X개다리-밥상	26
**X개이다	/설거지-통	16
**X개임	/설거지-물	16
갱-옛	/검은-옛	26
갸기	/교기	19
X거똥-그리다	→거든-그리다	17
거든-그리다	X거똥-그리다	17
-거리다	/-대다	26
가물-		
출렁-		
거슴츠레-	/계슴츠레-	19
하다	하다	
거시기	X거시키	4
X거시키	→거시기	4
거위-배	/횃-배	26
거짓-부리	( 거짓-불	16
( 거짓-불	거짓-부리	16
X건-같이	→마른-같이	21
X건-빨래	→마른-빨래	21

표제어	관련 단어	항
검은-엿	/갱-엿	26
젓	/해	26
내 ~		
네 ~		
누 ~		
걸-창	/덧-창	26
-게끔	X-게시리	25
게슴츠레-	/거슴츠레-	19
하다	하다	
X-게시리	→-게끔	25
게올러-	/게올러-	26
빠지다	터지다	
게올러-	/게올러-	26
터지다	빠지다	
결구(結句)	X결귀	13
X결귀	→결구	13
X결두-결두	→결사-결사	25
결사-결사	X결두-결두	25
	X결지-결지	
결-상	X맞-상	22
X결지-결지	→결사-결사	25
경구(警句)	X경귀	13
X경귀	→경구	13
X경-없다	→경황-없다	15
경인구	X경인귀	13
(警人句)		
X경인귀	→경인구	13
경황-없다	X경-없다	15
X결땀-내	→암-내	25
고구마	X참-감자	25
고깃-간	푸줏-간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X고깃-관	
	*X다림-방	
	*X푸줏-관	
*X고깃-관	→/고깃-간	26
	/푸줏-간	
고까	/꼬까	19
		26
	/때때	26
~신		
~옷		
X고랑-쇠	→쇠-고랑	25
고린-내	/코린-내	19
-고말고	/-다마다	26
고봉-밥	X높은-밥	22
고삐	X고삐	5
결~		
속~		
X고삐	→고삐	5
**고삐		5
고이다	/괴다	18
고치다	X낮우다	25
X골목-자기	→골목-쟁이	25
X골목-장이	→골목-쟁이	9
골목-쟁이	X골목-자기	25
	X골목-장이	9
X골집	→순대	25
곰곰	/곰곰-이	26
곰곰-이	/곰곰	26
X공골-차다	→옹골-차다	17
관계-없다	/상관-없다	26
X광우리	→광주리	25



표제어	관련 단어	항
광주리	×광우리	25
괴다	/고이다	18
괴통	×호구	25
괴팍-하다	×괴팍-하다	10
	×괴팍-하다	
×괴팍-하다	→괴팍-하다	10
×괴팍-하다	→괴팍-하다	10
교기(驕氣)	/가기	19
교정-보다	/준-보다	26
×구-글	→귀-글	13
×구들-고래	→방-고래	22
구들-장	×방-돌	21
구들-재	/구재	26
-구려	×-구료	11
×-구료	→-구려	11
구린-내	/쿠린-내	19
-구면	×-구면	10
×-구면	→-구면	10
구법(句法)	×귀법	13
×구슬-사탕	→알-사탕	25
구어-박다	×구워-박다	17
×구워-박다	→구어-박다	17
구재	/구들-재	26
구절(句節)	×귀절	13
구점(句點)	×귀점	13
×구-짓	→굴-짓	5
국-물	×말-국	25
	×말-국	
×군-달	→윤-달	22
×군용-어음	→군-표	25
군-표	×군용-어음	25

표제어	관련 단어	항
굴-짓	×구-짓	5
×궁-떨다	→궁상-떨다	15
궁상-떨다	×궁-떨다	15
×귀-개	→귀이-개	15
귀-고리	×귀엣-고리	17
귀-글	×구-글	13
귀-뿔	×귀-뿔	17
귀밑-머리	×귓-머리	24
×귀법	→구법	13
×귀에-지	→귀-지	17
×귀엣-고리	→귀-고리	17
귀이-개	×귀-개	15
×귀절	→구절	13
×귀점	→구점	13
귀-지	×귀에-지	17
귀찮다	×귀치-않다	14
×귀치-않다	→귀찮다	14
귀통-머리	/귀통-배기	26
귀통-배기	/귀통-머리	26
*귀통이		26
×귀-뿔	→귀-뿔	17
×귓-머리	→귀밑-머리	24
극성-떨다	/극성-부리다	26
극성-부리다	/극성-떨다	26
×글-구	→글-귀	13
글-귀	×글-구	13
×기롱-지거리	→농-지거리	25
*기롱-지거리		25
기세-부리다	/기세-피우다	26
기세-피우다	/기세-부리다	26
기승-떨다	/기승-부리다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기승-부리다	／기승-떨다	26
×기음	→김	14
*길라잡이		25
×길-앞잡이	→길-잡이	25
길-잡이	×길-앞잡이	25
길품-샀	×보행-샀	21
김	×기음	14
~매다		
깃-저고리	／배내-옷	26
	／배넛-저고리	
까다롭다	×까닭-스럽다	25
	×까탈-스럽다	
×까닭-스럽다	→까다롭다	25
까딱-하면	×까딱-하면	17
×까딱-하면	→까딱-하면	17
까막-눈	×맹-눈	21
×까-무느다	→까-몽개다	24
까-몽개다	×까-무느다	24
×까치-다리	→까치-발	25
까치-발	×까치-다리	25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25
각쟁이	×각정이	11
서울~		
알~		
찰~		
각정이	→각쟁이	11
*각정이		11
×깡충-깡충	→깡충-깡충	8
깡충-깡충	×깡충-깡충	8
꺼림-하다	／계름-하다	19
*경충-경충		8

표제어	관련 단어	항
계름-하다	／꺼림-하다	19
꼬까	／고까	19
	／때때	26
~신		26
~옷		
꼬리-별	／살-별	26
꼬이다	／피다	18
꼬창-모	×말뚝-모	25
꼭두-각시	×꼭둑-각시	17
×꼭둑-각시	→꼭두-각시	17
꼭지-미역	×총각-미역	21
꽃-도미	／뽕-뚝	26
피다	／꼬이다	18
×끄나불	→끄나풀	3
끄나풀	×끄나불	3
×깼	→깼-새	15
깼-새	×깼	15
	(L)	
나귀	／당-나귀	26
×-나기	→-내기	9
×나루	→나룻-배	25
*나루[津]		25
나룻-배	×나루	25
나무라다	×나무래다	11
×나무래다	→나무라다	11
나룻-갯	×시장-갯	21
**나발		3
×나발-꽃	→나팔-꽃	3
나부랭이	／너부렁이	19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나색	→내색	17
×나절-가웃	→반-나절	25
**나절-가웃		25
**나팔		3
나팔-꽃	×나발-꽃	3
낙인-찍다	×낙-치다	15
	×낙-하다	
×낙-치다	→낙인-찍다	15
×낙-하다	→낙인-찍다	15
난구(難句)	×난귀	13
×난귀	→난구	13
난봉	×봉	20
날-걸	/세-뿔	26
**×날락-들락	→들락-날락	25
×남비	→냄비	9
남-도리	×민-도리	25
×낫우다	→고치다	25
×낭	→낭-떠러지	20
낭-떠러지	×낭	20
-내기	×-나기	9
서울-		
시골-		
신출-		
풋-		
내리-글씨	/세로-글씨	26
내색	×나색	17
내송-스럽다	×내홍-스럽다	17
내왕-꾼	×냉-꾼	15
×내홍-스럽다	→내송-스럽다	17
냄비	×남비	9
×냉-꾼	→내왕-꾼	15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남남-거리다	×얌남-거리다	17
남남-이	×얌남-이	17
*남남-하다		17
너〔四〕	×네	17
~ 돈		
~ 말		
~ 발		
~ 문		
×너	→넉	17
×너벅지	→자배기	25
너부렁이	/나부렁이	19
넉〔四〕	×너	17
	×네	
~ 냥		
~ 되		
~ 섬		
~ 자		
넉쿨	/덩굴	26
	*×덩쿨	
네	/예	18
×네	→너	17
×네	→넉	17
×네-째	→넷-째	6
넷-째	×네-째	6
×넉	→넉	3
넉	×넉	3
동~		
들~		
새벽~		
동틀~		
넉	/쪽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동~		
서~		
X노다지	→언제나	25
X노닥다리	→늑-다리	21
노을	( 놀	16
저녁~		
( 놀	노을	16
저녁~		
농-지거리	X기룡-지거리	25
X높은-밥	→고봉-밥	22
눈-대중	/눈-어림	26
	/눈-짐작	
눈-어림	/눈-대중	26
	/눈-짐작	
눈-짐작	/눈-대중	26
	/눈-어림	
X뉘연-히	→버젓-이	25
느리-광이	/느림-보	26
	/늘-보	
느림-보	/느리-광이	26
	/늘-보	
X느물다	→뿔-내다	25
늘-보	/느리-광이	26
	/느림-보	
늑-다리	X노닥다리	21
늑-모	/마냥-모	26
(ㄷ, ㄸ)		
X다구	→다오	25
다기-지다	다기-차다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다기-차다	/다기-지다	26
다다르다	X다달다	17
X다달다	→다다르다	17
다달-이	/매-달	26
*X다림-방	→/고깃-간	26
	/푸죽-간	
-다마다	/-고말고	26
다박-나룻	/다박-수염	26
다박-수염	/다박-나룻	26
다사-스럽다	X다사-하다	25
X다사-하다	→다사-스럽다	25
X다시마-자반	→부각	25
다오	X다구	25
**다음	** ( 담	15
단구(短句)	X단귀	13
X단귀	→단구	13
단명구	X단명귀	13
(短命句)		
X단명귀	→단명구	13
단-벌	X홀-벌	22
닭의-장	/닭-장	26
닭-장	/닭의-장	26
** ( 담	**다음	15
X담배-꼬투리	→담배-꽁초	25
담배-꽁초	X담배-꼬투리	25
	X담배-꽁추	
	X담배-꽁치	
X담배-꽁추	→담배-꽁초	25
X담배-꽁치	→담배-꽁초	25
담배-설대	X대-설대	25
X담장이-덩굴	→담쟁이-덩굴	9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담쟁이-덩굴	×담장이-덩굴	9
당-고금	/이틀-거리	26
당-나귀	/나귀	26
대구(對句)	×대귀	13
~법(~法)		
×대귀	→대구	13
-대다	/-거리다	26
가물-		
출렁-		
×대-설대	→담배-설대	25
×대-싸리	→땀-싸리	17
대장-일	×성냥-일	25
**대하천간		3
(大廈千間)		
땀-싸리	×대-싸리	17
땀-돌	/뿔-돌	26
더부룩-하다	×더뿌룩-하다	17
	×뎀뿌룩-하다	
×더뿌룩-하다	→더부룩-하다	17
-던	×-든	17
-던가	×-든가	17
-던걸	×-든걸	17
-던고	×-든고	17
-던데	×-든데	17
-던지	×-든지	17
뎀-창	/걸-창	26
덩굴	/녕쿨	26
	*×덩쿨	
*×덩쿨	→/녕쿨	26
	/덩굴	
×도래-도래	→오래-오래	17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도록		17
×독대	→반두	25
독보(櫛櫛)	/신주-보	26
독장-치다	/독판-치다	26
독판-치다	/독장-치다	26
돌	×뿔	6
×뿔	→돌	6
×뿔	→뿔-자리	15
뿔-자리	×뿔	15
×동당이-치다	→동댕이-치다	9
동댕이-치다	×동당이-치다	9
×-동이	→-동이	8
동자-기둥	/쪼구미	26
×동-파	→움-파	21
돼지-감자	/똥만지	26
되게	/되우	26
	/되통	
되우	/되게	26
	/되통	
되통	/되게	26
	/되우	
두껍-달이	×두껍-창	21
×두껍-창	→두껍-달이	21
두동-무니	/두동-사니	26
두동-사니	/두동-무니	26
×두-째	→둘-째	6
둘-째	×두-째	6
×둥근-파	→양-파	22
-동이	×-동이	8
검-		
귀-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막-		
바람-		
선-		
쌍-		
흰-		
×뿡-박	→뒤웅-박	15
×뒤꼭지-치다	→뒤통수-치다	25
×뒤어-내다	→뒤져-내다	25
뒤웅-박	×뿡-박	15
뒤져-내다	×뒤어-내다	25
뒤통수-치다	×뒤꼭지-치다	25
뒹-갈망	／뒹-감당	26
뒹-감당	／뒹-갈망	26
×뒹-대야	→뒹물-대야	15
뒹-말	／뒹-소리	26
뒹물-대야	×뒹-대야	15
×뒹-발톱	→며느리-발톱	25
뒹-소리	／뒹-말	26
×-든	→-던	17
*-든		17
×-든가	→-던가	17
×-든걸	→-던걸	17
×-든고	→-던고	17
×-든데	→-던데	17
×-든지	→-던지	17
들락-거리다	／들랑-거리다	26
들락-날락	／들랑-날랑	26
들랑-거리다	／들락-거리다	26
들랑-날랑	／들락-날락	26
×뚱뚱-하다	→더부룩-하다	17
* 등		25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등경-걸이	→등잔-걸이	25
등-나무	×등-취	25
등-매기	×등-떠리	25
×등-떠리	→등-매기	25
등잔-걸이	×등경-걸이	25
×등-취	→등-나무	25
**등-취		25
등화-앉다	／등화-지다	26
	／불뚱-앉다	
등화-지다	／등화-앉다	26
	／불뚱-앉다	
×따라-먹다	→앞-지르다	25
땀-전	／땀-칭	26
땀-칭	／땀-전	26
×딸꼭-단추	→뚝딱-단추	25
땅-콩	／호-콩	26
때때	／고까	26
	／꼬까	
~신		
~옷		
멜-감	／멜-거리	26
멜-거리	／멜-감	26
떡-보	×떡-총이	25
떡-암죽	×병-암죽	21
×떡-총이	→떡-보	25
×떨어-먹다	→털어-먹다	3
×또아리	→뽀리	14
뚝딱-단추	×딸꼭-단추	25
뽀리	×또아리	14
뚱뚱지	／돼지-감자	26
-뜨리다	／-트리다	26

표 제 어	관련 단어	항
깨-		
떨어-		
쏟-		
뜯-것	/ 뜯-귀신	26
뜯-귀신	/ 뜯-것	26
× 뜯-단지	→ 부항-단지	22
(ㄹ)		
×-(으)리라고	→-(으)려고	17
×-(으)리라야	→-(으)려야	17
×-(으)리려고	→-(으)려고	17
×-(으)리려야	→-(으)려야	17
- (으)려고	×-(으)리라고	17
	×-(으)리려고	
- (으)려야	×-(으)리라야	17
	×-(으)리려야	
(ㄱ)		
마구-잡이	×막-잡이	15
×마기	→막상	24
마냥-모	/ 닳-모	26
마룻-줄	/ 용총-줄	26
	*×이어-줄	
마른-갈이	×건-갈이	21
마른-빨래	×건-빨래	21
×마바리-집	→마방-집	22
마방-집	×마바리-집	22
**마음	** ( 맘	15
마-파람	/ 앞-바람	26

표 제 어	관련 단어	항
( 막대	막대기	16
막대기	( 막대	16
막상	×마기	24
×막-잡이	→마구-잡이	15
**×만양-모	→마냥-모	26
만장-중	/ 만장-판	26
(滿場中)		
만장-판	/ 만장-중	26
만치	/ 만큼	26
만큼	/ 만치	26
×말-것	→말-결	5
말-결	×말-것	5
×말-국	→국-물	25
×말-담	→입-담	25
말-동무	/ 말-벗	26
×말뚝-모	→꼬창-모	25
말-벗	/ 말-동무	26
×말-약	→가루-약	21
** ( 맘	**마음	15
망가-뜨리다	×망그-뜨리다	17
×망그-뜨리다	→망가-뜨리다	17
( 망태	망태기	16
망태기	( 망태	16
×맞-상	→검-상	22
매-갈이	/ 매-조미	26
매-달	/ 다달-이	26
매-만지다	×우미다	25
매-조미	/ 매-갈이	26
매-통	/ 목-매	26
×맵자다	→맵자-하다	15
맵자-하다	×맵자다	15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맹-눈	→까막-눈	21
×머귀-나무	→오동-나무	20
**머귀-나무		20
머무르다	( 머물다	16
( 머물다	머무르다	16
먹-새	/먹음-새	26
	*×먹음-먹이	
*×먹음-먹이	→/먹-새	26
	/먹음-새	
먹음-새	/먹-새	26
	*×먹음-먹이	
면-발치	×면-발치기	25
×면-발치기	→면-발치	25
×멀-국	→국-물	25
멀찌가니	/멀찌감치	26
	/멀쩍-이	
멀찌감치	/멀찌가니	26
	/멀쩍-이	
멀쩍-이	/멀찌가니	26
	/멀찌감치	
×멋-장이	→멋-쟁이	9
멋-쟁이	×멋-장이	9
명개	/우렁쌩이	23
×메리치	→멀치	17
매-찰떡	×반-찰떡	21
×멧-누에	→산-누에	22
×멧-밭	→산-줄기	22
×멧-줄기	→산-줄기	22
머느리-발톱	×뒷-발톱	25
×머루치	→멀치	17
떡-통	산-떡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산-떡통	
면구-스럼다	/민망-스럼다	22
	×민주-스럼다	
면-치레	/외면-치레	26
면화-씨	/목화-씨	26
멀치	×메리치	17
	×머루치	
명주-붙이	×주-사니	25
×모	→모이	15
*모-내기	* /모-심기	26
모-내다	/모-심다	26
모-되	/목판-되	26
*모-심기	* /모-내기	26
모-심다	/모-내다	26
모이	×모	15
모쪼록	/아무쪼록	26
목-매	/매-통	26
×목-맺히다	→목-메다	25
목-메다	×목-맺히다	25
×목-발	→지겟-다리	21
목판-되	/모-되	26
목화-씨	/면화-씨	26
무	×무우	14
	~강즙	
	~말랭이	
	~생채	
	가랑~	
	갓~	
	왜~	
	총각~	
**무르다		1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무-삼	→수-삼	22
무심-결	/무심-중	26
무심-중	/무심-결	26
×무우	→무	14
×무이다	→미다	14
문구(文句)	×문귀	13
×문귀	→문구	13
**×물다	→**무르다	16
물-방개	/선두리	23
물-봉선화	/물-봉숭아	26
물-봉숭아	/물-봉선화	26
물-부리	/빨-부리	26
물-수란	×물-수랄	5
×물-수랄	→물-수란	5
물-시중	/물-심부름	26
물-심부름	/물-시중	26
물추리-나무	/물추리-막대	26
물추리-막대	/물추리-나무	26
물-타작	/진-타작	26
×물탄-피	→얇은-피	25
미다	×무이다	14
×미-뜨리다	→밀-뜨리다	5
×미력	→미룩	10
미루-나무	×미류-나무	10
×미류-나무	→미루-나무	10
미룩	×미력	10
~보살		
~불		
돌~		
미수	×미시	11
미숫-가루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미시	→미수	11
미장이	×미쟁이	9
×미쟁이	→미장이	9
×민-도리	→남-도리	25
민둥-산	/벌거숭이-산	26
민망-스럼다	/면구-스럼다	22
	×민주-스럼다	
×민주-스럼다	→/면구-스럼다	22
	/민망-스럼다	
밀-뜨리다	×미-뜨리다	5
밀짚-모자	×보릿짚-모자	25
밀-층	/아래-층	26
(ㅂ, ㅃ)		
*-ㅂ니다		17
바가지	×열-바가지	25
	×열-박	
바깥-벽	/밭-벽	26
바라다	×바래다	11
×바람-고다리	→바람-꼭지	25
바람-꼭지	×바람-고다리	25
×바래다	→바라다	11
*×바램〔所望〕		11
바른〔右〕	/오른	26
~손		
~쪽		
~편		
박달-나무	×배달-나무	21
반-나절	×나절-가웃	25
반두	×독대	25

표제어	관련 단어	항
* 반비		17
× 반비-아치	→ 반빗-아치	17
* 반빗		17
반빗-아치	× 반비-아치	17
× 반-찰떡	→ 매-찰떡	21
× 발가-송이	→ 발가-송이	8
발가-송이	× 발가-송이	8
발-모가지	/ 발-목쟁이	26
* 발-목		26
× 발-목장이	→ 발-목쟁이	9
발-목쟁이	/ 발-모가지	26
	× 발-목장이	9
밥-소라	× 식-소라	21
방-고래	× 구들-고래	22
× 방-돌	→ 구들-장	21
발-벽	/ 바깥-벽	26
배내-옷	/ 깃-저고리	26
	/ 배넛-저고리	
배넛-저고리	/ 깃-저고리	26
	/ 배내-옷	
× 배달-나무	→ 락달-나무	21
× 배암	→ 뱀	14
× 배암-장어	→ 뱀-장어	14
* 백마		21
× 백-말	→ 흰-말	21
× 백-죽	→ 흰-죽	21
뱀	× 배암	14
뱀-장어	× 배암-장어	14
* 뱀충-이		25
버들-강아지	/ 버들-개지	26
버들-개지	/ 버들-강아지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버리지	/ 벌레	26
	* × 벌거지	
	* × 벌러지	
버젓-이	× 뉘연-히	25
* 벌거-송이		8
벌거송이-산	/ 민둥-산	26
* × 벌거지	→ / 버리지	26
	/ 벌레	
* × 벌러지	→ / 버리지	26
	/ 벌레	
벌레	/ 버리지	26
	* × 벌거지	
	* × 벌러지	
× 법-반다	→ 본-반다	25
× 벽	→ 벽-돌	15
벽-돌	× 벽	15
× 벽-지다	→ 외-지다	21
변덕-맞다	/ 변덕-스럼다	26
변덕-스럼다	/ 변덕-맞다	26
× 병-암죽	→ 떡-암죽	21
× 보릿짚-모자	→ 밀짚-모자	25
× 보섭	→ 보습	17
보습	× 보섭	17
	× 보섭	
× 보섭	→ 보습	17
보-조개	/ 불-우물	26
보통-내기	/ 여간-내기	26
	/ 예사-내기	
	* × 행-내기	
× 보통이	→ 보통이	8
보통이	× 보통이	8

표제어	관련 단어	항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보행-샷	→길품-샷	21	부엌	×부엌	3
본-받다	×법-받다	25	부조(扶助)	×부조	8
본새	×뿐새	17	~금		
*불		26	부춧-술		
불-따구니	/불-때기	26	×부조	→부조	8
	/불-통이		×부지-군	→짐-꾼	21
불-때기	/불-따구니	26	(負持-)		
	/불-통이		부지깁이	×부지깁이	25
불-우물	/보-조개	26	×부지깁이	→부지깁이	25
불-통이	/불-따구니	26	*×부치개-질	→/부침개-질	26
	/불-때기		/부침-질		
×봉	→난봉	20	/지짐-질		
*봉선화		17	부침개-질	/부침-질	26
봉숭아	×봉숭화	17	/지짐-질		
×봉숭화	→봉숭아	17	*×부치개-질		
×봉죽	→봉죽	8	부침-질	/부침개-질	26
봉죽	×봉죽	8	/지짐-질		
~꾼			*×부치개-질		
~들다			부항-단지	×뜸-단지	22
부각	×다시마-자반	25	×부항-항아리	×부항-항아리	25
부끄러워-	×부끄리다	25	→부항-단지		25
하다			×분전	→푼-돈	21
×부끄리다	→부끄러워-	25	분침	×푼침	4
	하다		×불-돋우개	→심-돋우개	22
×부럼	→부스럼	15	불뚱-앉다	/등화-앉다	26
*부럼		15	/등화-지다		
×부루-말	→흰-말	21	불-사르다	/사르다	26
부스러기	×부스러지	25	불-돔	/꽃-도미	26
×부스러지	→부스러기	25	불으락-	×푸르락-	25
부스럼	×부럼	15	푸르락	불으락	
×부엌	→부엌	3	비발	/비용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비용(費用)	/비발	26
×비음	→빔	14
비켜-덩이	×옆-사리미	25
빈대-떡	×빈자-떡	24
×빈자-떡	→빈대-떡	24
×빌다	→빌리다	6
*빌다		6
빌리다	×빌다	6
빔	×비음	14
설~		
생일~		
×빙충-맞이	→빙충-이	25
빙충-이	×빙충-맞이	25
빠-뜨리다	×빠-치다	25
*빠-트리다		25
×빠-치다	→빠-뜨리다	25
*빨가-숭이		8
빨-부리	/물-부리	26
×뺨-따귀	→뺨-따귀	17
*뺨		17
×뺨-따구니	→뺨-따귀	17
뺨-따귀	×뺨-따귀	17
	×뺨-따구니	
뼈개다[斫]	×뼈기다	17
×뼈개다[誇]	→뼈기다	17
뼈기다[誇]	×뼈개다	17
×뼈기다[斫]	→뼈개다	17
×뺨장-다리	→뺨정-다리	8
뺨정-다리	×뺨장-다리	8
*뺨거-숭이		8
뺨뺨-하다	×왜긋다	25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뽀새	→본새	17
뽀-내다	×느물다	25
뽀두라지	/뽀루지	26
뽀루지	/뽀두라지	26
(人, 从)		
사글-세	×삭월-세	5
사돈(査頓)	×사돈	8
발~		
안~		
×사돈	→사돈	8
사래-논	×사래-답	21
×사래-답	→사래-논	21
사래-밭	×사래-전	21
×사래-전	→사래-밭	21
사로-잠그다	×사로-채우다	25
×사로-채우다	→사로-잠그다	25
사르다	/불-사르다	26
사자-탈	×사지-탈	17
×사지-탈	→사자-탈	17
×삭월-세	→사글-세	5
×샅-마	→샅-말	21
샅-말	×샅-마	21
산-누에	×멧-누에	22
산-떡	/떡-통	26
	/산-떡통	
산-떡통	/떡-통	26
	/산-떡	
산-줄기	×멧-줄기	22
	×멧-밭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살-막이	→살-풀이	25
살-별	/꼬리-별	26
살얼음-판	×살-판	15
살-팽이	/삶	26
	×삶-팽이	3
×살-판	→살얼음-판	15
살-풀이	×살-막이	25
삶	/살-팽이	26
×삶-팽이	→살-팽이	3
*삶-피		26
삼촌(三寸)	×삼촌	8
시~		
외~		
처~		
×삼촌	→삼촌	8
삼사리	/삼살-개	26
삼살-개	/삼사리	26
상관-없다	/관계-없다	26
*×상도-꾼	→/상두-꾼	26
	/상여-꾼	
상두-꾼	/상여-꾼	26
	*×상도-꾼	
	*×향도-꾼	
상-씨름	/소-걸이	26
상여-꾼	/상두-꾼	26
	*×상도-꾼	
	*×향도-꾼	
상추	×상치	11
~쌈		
×상치	→상추	11
×상투-	→상투-쟁이	25

표제어	관련 단어	항
꼬부랑이		
상투-쟁이	×상투- 꼬부랑이	25
상-판대기	×쌍-판대기	17
×새벽-별	→셋-별	25
×새암	→쌈	14
새앙	/생	26
	/생강	
새앙-뽕	/생강-뽕	26
	/생-뽕	
새앙-손이	×생강-손이	25
×새앙-취	→생-취	14
쌈	×새암	14
~바르다		
~바리		
셋-별	×새벽-별	25
생	/새앙	26
	/생강	
생강	/새앙	26
	/생	
생강-뽕	/새앙-뽕	26
	/생-뽕	
×생강-손이	→새앙-손이	25
생-뽕	/새앙-뽕	26
	/생강-뽕	
*생-손		24
×생안-손	→생인-손	24
생인-손	×생안-손	24
생-취	×새앙-취	14
생-철	/양-철	26
	*×서양-철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서(三)	×세 ×석	17
~ 돈		
~ 말		
~ 발		
~ 푼		
서두르다	( 서들다	16
( 서들다	서두르다	16
서럽다	/ 싫다	26
	*×설다	
×서령	→설령	17
**서른두-째		6
*×서방-가다	→/장가-가다	26
	/장가-들다	
서방-질	/화냥-질	26
*×서양-철	→/생-철	26
	/양-철	
서투르다	( 서틀다	16
( 서틀다	서투르다	16
석(三)	×세	17
~ 냥		
~ 되		
~ 섬		
~ 자		
×석	→세	17
( 석새-배	석새-삼베	16
석새-삼베	( 석새-배	16
선두리	/물-방개	23
선-머슴	×푯-머슴	25
**설거지		20
설거지-물	/개숫-물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설거지-통	/개수-통	26
설거지-하다	×설것다	20
×설것다	→설거지-하다	20
**×설것이	→**설거지	20
*×설다	→/서럽다	26
	/싫다	
설령(設令)	×서령	17
싫다	/서럽다	26
	*×설다	
섭섭-하다	×애운-하다	25
성구(成句)	×성귀	31
~어(~語)		
×성귀	→성구	13
성글다	/성기다	26
성기다	/성글다	26
성냥	×화곽	21
×성냥-일	→대장-일	25
×세	→서	17
×세	→석	17
세로-글씨	/내리-글씨	26
세-뿔	/날-걸	26
세사(細沙)	/시새	26
-(으)세요	/-(으)셔요	26
×세-째	→셋-째	6
셋-째	×세-째	6
-(으)셔요	/-(으)세요	26
쇼-	/쇠-	18
-가죽		
-고기		
-기름		
-머리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뼈		
소-결이	/상-씨름	26
×소금-장이	→소금-쟁이	9
소금-쟁이	×소금-장이	9
×소리개	→솔개	14
속-말	×속-소리	25
×속-소리	→속-말	25
*속-소리		25
×손-구루마	→손-수레	25
손목-시계	×팔목-시계	25
	×팔뚝-시계	
손-수레	×손-구루마	25
솔개	×소리개	14
숫을-무늬	×숫을-문	21
×숫을-문(-紋)	→숫을-무늬	21
송이	/송이-버섯	26
송이-버섯	/송이	26
쇠-	/소-	18
-가죽		
-고기		
-기름		
-머리		
-뼈		
쇠-고랑	×고랑-쇠	25
**수-개미		7
**수-거미		7
수-평	×수-횡	7
	×숫-평	
**수-나비		7
수-나사	×숫-나사	7
수-놈	×숫-놈	7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수도-고동	→수도-꼭지	25
수도-꼭지	×수도-고동	25
수두룩-하다	×수둑-하다	15
×수둑-하다	→수두룩-하다	15
수-사돈	×숫-사돈	7
수-삼	×무-삼	22
수-소	×숫-소	7
수수-깡	/수숫-대	26
**수-술		7
수숫-대	/수수-깡	26
×수-양	→숫-양	7
×수-염소	→숫-염소	7
수-은행나무	×숫-은행나무	7
×수-취	→숫-취	7
×수지	→휴지	5
수-강아지	×숫-강아지	7
수-캐	×숫-개	7
수-컷	×숫-것	7
×수-횡	→수-평	7
수-키와	×숫-기와	7
수-닭	×숫-닭	7
수-탕나귀	×숫-당나귀	7
수-톨쩌귀	×숫-돌쩌귀	7
수-돼지	×숫-돼지	7
수-병아리	×숫-병아리	7
**수-할미새		7
숙성-하다	×숙-지다	25
×숙-지다	→숙성-하다	25
순대	×꿀집	25
술-고래	×술-꾸러기	25
	×술-보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술-부대	
	×술-푸대	
×술-꾸러기	→술-고래	25
×술-보	→술-고래	25
×술-부대	→술-고래	25
술-안주	/안주	26
×술-푸대	→술-고래	25
×숫-강아지	→수-강아지	7
×숫-개	→수-개	7
×숫-것	→수-것	7
×숫-기와	→수-기와	7
×숫-평	→수-평	7
×숫-나사	→수-나사	7
×숫-놈	→수-놈	7
×숫-닭	→수-닭	7
×숫-탕나귀	→수-탕나귀	7
×숫-돌쩌귀	→수-돌쩌귀	7
×숫-돼지	→수-돼지	7
×숫-병아리	→수-병아리	7
×숫-사돈	→수-사돈	7
×숫-소	→수-소	7
숫-양	×수-양	7
숫-염소	×수-염소	7
×숫-은행나무	→수-은행나무	7
숫-쥐	×수-쥐	7
-스레하다	/-스름하다	26
거무-		
발그-		
-스름하다	/-스레하다	26
거무-		
발그-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스물두-째		6
*스물들-째		6
-습니다	×-읍니다	17
갔습니다		
먹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구(詩句)	×시귀	13
×시귀	→시구	13
(시-누	시-누이	16
시-누이	(시-누	16
(시-누	(시-누	16
시늬-말	/흥내-말	26
×시늬-시늬	→시름-시름	17
시러베-아들	×실업의-아들	11
시름-시름	×시늬-시늬	17
시새	/세사	26
×시장-갓	→나뭇-갓	21
×식-소라	→밥-소라	21
식은-땀	×찬-땀	25
신	/신발	26
신기-롭다	×신기-스럽다	25
×신기-스럽다	→신기-롭다	25
*신기-하다		25
신발	/신	26
신주-보	/독보	26
×실업의-아들	→시러베-아들	11
심-돋우개	×불-돋우개	22
심술-꾸러기	/심술-쟁이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심술-쟁이	/심술-꾸러기	26
쌍둥-밤	×쪽-밤	25
×쌍-판대기	→상-판대기	17
×쌈떡-쌈떡	→쌈떡-쌈떡	17
**쌈떡-쌈떡		17
쏘이다	/췌다	18
쏟살-같이	×쏟살-로	25
×쏟살-로	→쏟살-같이	25
췌다	/쏘이다	18
쌈떡-쌈떡	×쌈떡-쌈떡	17
췌쓰레-하다	/췌쓰름-하다	26
췌쓰름-하다	/췌쓰레-하다	26
(○)		
아궁이	×아궁지	17
×아궁지	→아궁이	17
아귀-세다	/아귀-차다	26
아귀-차다	/아귀-세다	26
아내	×안해	17
아래-로	×알-로	15
아래-위	/위-아래	26
아래-층	/밑-층	26
*아무-작		17
아무췌룩	/모췌룩	26
아무튼	/어뻡든	26
	/어췌든	
	/여하튼	
	/하여튼	
아서	×앗아	8
아서라	×앗아라	8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아주	×영판	25
아지랑이	×아지랭이	9
×아지랭이	→아지랑이	9
안-결이	×안-낙시	25
×안-낙시	→안-결이	25
×안다미-	→안다미-	25
시키다	췌우다	
안다미-	×안다미-	25
췌우다	시키다	
×안-슬프다	→안쓰럽다	25
안쓰럽다	×안-슬프다	25
안절부절-	×안절부절-	25
못하다	하다	
×안절부절-	→안절부절-	25
하다	못하다	
안주	/술-안주	26
×안해	→아내	17
앓은뱅이-	×앓은-저울	25
저울		
×앓은-저울	→앓은뱅이-	25
저울		
앓음-새	/앓음-앓음	26
앓음-앓음	/앓음-새	26
×알-로	→아래-로	15
×알-무	→총각-무	22
알-사탕	×구슬-사탕	25
알은-척	/알은-체	26
알은-체	/알은-척	26
×알타리-무	→총각-무	22
×암	→암-죽	15
암-내	×결땀-내	25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암-죽	×암	15
×앗아	→아서	8
×앗아라	→아서라	8
앞-바람	/마-파람	26
앞-지르다	×따라-먹다	25
애-같이	/애벌-같이	26
애꾸눈-이	/외눈-박이	26
	*×외눈-통이	
	*×외대-박이	
애달프다	×애답다	20
×애답다	→애달프다	20
애벌-같이	/애-같이	26
애-벌레	×어린-벌레	25
애-순	/어린-순	23
×애운-하다	→섭섭-하다	25
×얇남-거리다	→남남-거리다	17
×얇남-이	→남남-이	17
양념-감	/양념-거리	26
양념-거리	/양념-감	26
양-철	/생-철	26
	*×서양-철	
양-파	×둥근-파	22
얇은-피	×물탄-피	25
어구(語句)	×어귀	13
×어귀	→어구	13
어금버금-	/어금지금-	26
하다	하다	
어금지금-	/어금버금-	26
하다	하다	
어기여차	/어여차	26
어떻든	/아무튼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어쨌든	
	/여하튼	
	/하여튼	
×어린-벌레	→애-벌레	25
어린-순	/애-순	23
어림-잡다	/어림-치다	26
어림-치다	/어림-잡다	26
어여차	/어기여차	26
어음	×엄	15
어이-없다	/어처구니-	26
	없다	
어저께	/어제	26
어제	/어저께	26
어-중간	×어지-중간	17
×어지-중간	→어-중간	17
×어질-머리	→어-질병	22
어질-병	×어질-머리	22
어쨌든	/아무튼	26
	/어떻든	
	/여하튼	
	/하여튼	
어처구니-	/어이-없다	26
없다		
언덕-바지	/언덕-배기	26
언덕-배기	/언덕-바지	26
언뜻	×편뜻	25
언제나	×노다지	25
얼렁-뚱땅	/엄병-땡	26
얼룩-말	×위라-말	25
×엄	→어음	15
엄병-땡	/얼렁-뚱땅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에는	×-엘랑	25
×-엘랑	→-에는	25
여간-내기	/보통-내기	26
	/예사-내기	
	*×행-내기	
여느	×여너	10
×여너	→여느	10
여왕-벌	/장수-벌	26
*×여직	→/여태	26
	/입때	
*×여직-껏	→/여태-껏	26
	/이제-껏	
	/입때-껏	
여쭙다	/여쭙다	26
여쭙다	/여쭙다	26
여태	/입때	26
	*×여직	
여태-껏	/이제-껏	26
	/입때-껏	
	*×여직-껏	
여하튼	/아무튼	26
	/어떻든	
	/어쨌든	
	/하여튼	
역-겹다	×역-스럽다	24
역성-들다	/역성-하다	26
	*×편역-들다	
역성-하다	/역성-들다	26
	*×편역-들다	
×역-스럽다	→역-겹다	24
연구(聯句)	×연귀	13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연귀	→연구	13
연-달다	/잇-달다	26
열두-째		6
*열둘-째		6
×열-바가지	→바가지	25
×열-박	→바가지	25
×열심-으로	→열심-히	25
열심-히	×열심-으로	25
옛-가락	/옛-가래	26
옛-가래	/옛-가락	26
옛-기름	/옛-길금	26
옛-길금	/옛-기름	26
옛-반대기	/옛-자박	26
옛-자박	/옛-반대기	26
×영판	→아주	25
×옆-사리미	→비켜-덩이	25
예	/네	18
예사-내기	/보통-내기	26
	/여간-내기	
	*×행-내기	
×오금-탱이	→오금-팽이	17
오금-팽이	×오금-탱이	17
(오-누	오-누이	16
오-누이	(오-누	16
(오-누	오-누이	16
(오-누	오-누이	16
*오도카니		17
오동-나무	×머귀-나무	20
×오뚝-이	→오뚝-이	8
오뚝-이	×오뚝-이	8
*오뚝-이		8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오락-가락		25
오래-오래	×도래-도래	17
오른[右]	/바른	26
~손		
~쪽		
~편		
오사리-잡놈	/오색-잡놈	26
	*×오합-잡놈	
오색-잡놈	/오사리-잡놈	26
	*×오합-잡놈	
×오얏	→자두	20
*×오합-잡놈	→/오사리-잡놈	26
	/오색-잡놈	
옥수수	/강냉이	26
~떡		
~묵		
~밥		
~튀김		
×온-가지	→온-갖	14
온-갖	×온-가지	14
온-달	×원-달	10
×-을습니다	→-을시다	17
-을시다	×-을습니다	17
*×을-실	→/외곹-실	26
	/외을-실	
	/홀-실	
옹골-차다	×공골-차다	17
왕골-기적	/왕골-자리	26
왕골-자리	/왕골-기적	26
×왜긋다	→뻗뻗-하다	25
외곹-실	/외을-실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홀실	
	*×을-실	
	*×홀곹-실	
외눈-박이	/애꾸눈-이	26
	*×외대-박이	
	*×외눈-통이	
*×외눈-통이	→/애꾸눈-이	26
	/외눈-박이	
(외다	외우다	16
*×외대-박이	→/애꾸눈-이	26
	/외눈-박이	
외면-치레	/면-치레	26
외손-잡이	/한손-잡이	26
외을-실	/외곹-실	26
	/홀-실	
	*×을-실	
	*×홀곹-실	
외우다	(외다	16
외-지다	×벽-지다	21
×원-달	→온-달	10
육심-꾸러기	/육심-쟁이	26
육심-쟁이	/육심-꾸러기	26
용충-줄	/마룻-줄	26
	*×이어-줄	
×우두머니	→우두커니	17
우두커니	×우두머니	17
우렁쟁이	/멍게	23
우레	/천둥	26
우렛-소리		
**×우뢰(雨雷)	→우레	26
×우미다	→매-만지다	25

표제어	관련 단어	항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우지	／울-보	26	×웃-자리	→윗-자리	12
울력-성당	×위력-성당	5	×웃-중방	→윗-중방	12
울-보	／우지	26	×웃-짜	→위-짜	12
움-파	×동-파	21	×웃-쪽	→위-쪽	12
웃-국	×윗-국	12	×웃-채	→위-채	12
웃-기	×윗-기	12	×웃-층	→위-층	12
×웃-넓이	→윗-넓이	12	×웃-치마	→위-치마	12
×웃-눈썹	→윗-눈썹	12	×웃-턱	→위-턱	12
×웃-니	→윗-니	12	×웃-팔	→위-팔	12
×웃-당줄	→윗-당줄	12	×위라-말	→얼룩-말	25
×웃-덧줄	→윗-덧줄	12	* 월세		5
×웃-도리	→윗-도리	12	×위력-성당	→울력-성당	5
웃-돈	×윗-돈	12	위-아래	／아래-위	26
×웃-동아리	→윗-동아리	12	위-짜	×웃-짜	12
×웃-막이	→윗-막이	12	위-쪽	×웃-쪽	12
×웃-머리	→윗-머리	12	위-채	×웃-채	12
×웃-목	→윗-목	12	위-층	×웃-층	12
×웃-몸	→윗-몸	12	위-치마	×웃-치마	12
×웃-바람	→윗-바람	12	위-턱	×웃-턱	12
×웃-배	→윗-배	12	~구름		
×웃-벌	→윗-벌	12	위-팔	×웃-팔	12
×웃-변	→윗-변	12	* 윗-간		3
웃-비	×윗-비	12	×윗-국	→웃-국	12
~걷다			×윗-기	→웃-기	12
×웃-사랑	→윗-사랑	12	윗-넓이	×웃-넓이	12
×웃-세장	→윗-세장	12	윗-눈썹	×웃-눈썹	12
×웃-수염	→윗-수염	12	윗-니	×웃-니	12
웃-어른	×윗-어른	12	윗-당줄	×웃-당줄	12
웃-웃	×윗-웃	12	윗-덧줄	×웃-덧줄	12
×웃-입술	→윗-입술	12	윗-도리	×웃-도리	12
×웃-잇몸	→윗-잇몸	12	×윗-돈	→웃-돈	12

표제어	관련 단어	항
* 윷-동		12
윷-동아리	× 윷-동아리	12
윷-막이	× 윷-막이	12
윷-머리	× 윷-머리	12
윷-목	× 윷-목	12
윷-몸	× 윷-몸	12
~운동		
윷-바람	× 윷-바람	12
윷-배	× 윷-배	12
윷-별	× 윷-별	12
윷-변	× 윷-변	12
× 윷-비	→ 윷-비	12
윷-사랑	× 윷-사랑	12
윷-세장	× 윷-세장	12
윷-수염	× 윷-수염	12
× 윷-어른	→ 윷-어른	12
× 윷-웃	→ 윷-웃	12
윷-입술	× 윷-입술	12
윷-잇몸	× 윷-잇몸	12
윷-자리	× 윷-자리	12
윷-중방	× 윷-중방	12
유기장이	× 유기쟁이	9
× 유기쟁이	→ 유기장이	9
윤-달	× 군-달	22
으레	× 으레	10
× 으레	→ 으레	10
올러-대다	／올러-메다	26
올러-메다	／올러-대다	26
×-읍니다	→-습니다	17
의심-스럽다	／의심-쩍다	26
의심-쩍다	／의심-스럽다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이기죽-	( 이죽-거리다	16
거리다		
-이어요	／-이에요	26
*×이어-줄	→／마룻-줄	26
	／용총-줄	
-이에요	／-이에요	26
이제-껏	／여태-껏	26
	／입때-껏	
	*×여직-껏	
( 이죽-거리다	이기죽-	16
	거리다	
×이-잡쌀	→잡-쌀	25
이틀-거리	／당-고금	26
인용구	×인용귀	13
	(引用句)	
×인용귀	→인용구	13
일구다	×일다	15
×일다	→일구다	15
일일-이	／하나-하나	26
일찌감치	／일찌거니	26
일찌거니	／일찌감치	26
입-담	×말-담	25
입때	／여태	26
	*×여직	
입때-껏	／여태-껏	26
	／이제-껏	
	*×여직-껏	
입찬-말	／입찬-소리	26
입찬-소리	／입찬-말	26
잇-달다	／연-달다	26
×잇-솔	→칫-솔	22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앞-담배	×앞-초	21
×앞-초	→앞-담배	21
(ㄹ, ㄷ)		
자두	×오얏	20
자리-옷	/잠-옷	26
자물-쇠	/자물-통	26
자물-통	/자물-쇠	26
자배기	×너벅지	25
×자봉-틀	→재봉-틀	17
잔-돈	×잔-전	21
×잔-전	→잔-돈	21
잔-허리	/가는-허리	26
잠-옷	/자리-옷	26
×잠-주정	→잠-투정	17
×잠-투세	→잠-투정	17
잠-투정	×잠-주정	17
	×잠-투세	
장가-가다	/장가-들다	26
	*×서방-가다	
장가-들다	/장가-가다	26
	*×서방-가다	
*장끼		7
장력-세다	×장성-세다	22
×장사-아치	→장사-치	14
장사-치	×장사-아치	14
×장성-세다	→장력-세다	22
장수-벌	/여왕-벌	26
재롱-떨다	/재롱-부리다	26
재롱-부리다	/재롱-떨다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재봉-틀	×자봉-틀	17
발~		
손~		
×저으기	→적-이	5
적-이	×저으기	5
*적이-나		5
*적이나-하면		5
전봇-대	×전선-대	25
×전선-대	→전봇-대	25
절구(絶句)	×절귀	13
×절귀	→절구	13
제-가끔	/제-각기	26
제-각기	/제-가끔	26
제석	×젯-뚝	22
×젯-뚝	→제석	22
조-당수	×조-당죽	21
×조-당죽	→조-당수	21
조이다	/죄다	18
좁-처럼	/좁-채	26
	*×좁-채로	
	*×좁-해	
	*×좁-해선	
좁-채	/좁-처럼	26
	*×좁-채로	
	*×좁-해	
	*×좁-해선	
*×좁-채로	→/좁-처럼	26
	/좁-채	
*×좁-해	→/좁-처럼	26
	/좁-채	
*×좁-해선	→/좁-처럼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좁-체	
죄다	/조이다	18
×주-사니	→명주-붙이	25
×주착	→주책	11
주책	×주착	11
~망나니		
~없다		
주책-없다	×주책-이다	25
×주책-이다	→주책-없다	25
×주초	→주추	8
주추	×주초	8
주춧-돌		
*×죽더기	→죽데기	21
죽데기	×피-죽	21
	*×죽더기	
×죽-살	→죽-살이	15
죽-살이	×죽-살	15
준-보다	/교정-보다	26
줄-꾼	/줄-잡이	26
줄-잡이	/줄-꾼	26
중매	/중신	26
중신	/중매	26
취락-펴락	×펴락-취락	25
지겟-다리	×목-발	21
지루-하다	×지리-하다	11
×지리-하다	→지루-하다	11
-지만	×-지만서도	25
×-지만서도	→-지만	25
×지어-땡	→짓고-땡	25
지짐-질	/부침개-질	26
	/부침-질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부치개-질	
진-타작	/물-타작	26
짐-꾼	×부지-꾼	21
짓고-땡	×지어-땡	25
	×짓고-땡이	
×짓고-땡이	→짓고-땡	25
짓-무르다	×짓-물다	17
×짓-물다	→짓-무르다	17
짚-단	/짚-못	26
짚-못	/짚-단	26
*×짚-북더기	→짚-북데기	17
짚-북데기	×짚-북세기	17
	*×짚-북더기	
×짚-북세기	→짚-북데기	17
×짜른-작	→짧은-작	25
×짜	→쪽	17
짧은-작	×짜른-작	25
쪼구미	/동자-기둥	26
쪼이다	/죄다	18
쪽	/넙	26
동~		
서~		
쪽	×짜	17
이~		
그~		
저~		
쪽	/편	26
오른~		
왼~		
×쪽-밤	→쌍동-밤	25
죄다	/쪼이다	18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찌꺼기	(찌끼	16
*X찌꺼지	*X찌꺼지 →찌꺼기	16
(찌끼	(찌끼 찌꺼기 *X찌꺼지	16
	(天)	
차차	/차츰	26
차츰	/차차	26
X찬-땀	→식은-땀	25
X참-감자	→고구마	25
참-쌀	X이-참쌀	25
책-거리	/책-씻이	26
책-씻이	/책-거리	26
척	/채	26
천둥	/우레	26
천둥-소리		
천연덕-스럽다	/천연-스럽다	26
천연-스럽다	/천연덕-스럽다	26
천장(天障)	X천정	17
X천정	→천장	17
*천정부지		17
(天井不知)		
철-따구니	/철-딱서니 /철-딱지	26
철-딱서니	*X철-때기 /철-따구니 /철-딱지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철-딱지	*X철-때기 /철-따구니 /철-딱서니 *X철-때기	26
*X철-때기	→/철-따구니 /철-딱서니 /철-딱지	26
**첫-재		6
청대-콩	X푸른-콩	25
채	/척	26
*초가삼간		3
총각-무	X알-무	22
X총각-미역	X알타리-무 →꼭지-미역	21
X총-댕이	→포수	22
추어-올리다	/추어-주다	26
추어-주다	*X추켜-올리다 /추어-올리다	26
*X추켜-올리다	*X추켜-올리다 →/추어-올리다	26
	/추어-주다	
축-가다	/축-나다	26
축-나다	/축-가다	26
침-범	X갈-범	25
침-놓다	/침-주다	26
침-주다	/침-놓다	26
깃-솔	X잇-솔	22
	(ㄱ)	
칸	X간	3

표제어	관련 단어	항
~막이		
빈 ~		
방한 ~		
케케-묵다	×케케-묵다	10
×케케-묵다	→케케-묵다	10
코린-내	/고린-내	19
×코-맹녕이	→코-맹녕이	17
코-맹녕이	×코-맹녕이	17
×코-보	→코-주부	17
코-주부	×코-보	24
쿠린-내	/구린-내	19
(E)		
털어-먹다	×떨어-먹다	3
통-꼭지	/통-젓	26
통-젓	/통-꼭지	26
×통-치다	→한통-치다	15
×퇴-맞다	→퇴박-맞다	15
퇴박-맞다	×퇴-맞다	15
뒷-돌	/땃-돌	26
튀기	×트기	11
×트기	→튀기	11
-트리다	/-뜨리다	26
깨-		
떨어-		
쏟-		
(표)		
파자-쟁이	/해자-쟁이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팔뚝-시계	→손목-시계	25
×팔목-시계	→손목-시계	25
**확성		10
**팍-하다		10
×편뜻	→언뜻	25
×펴락-귀락	→귀락-펴락	25
편	/쪽	26
오른~		
왼~		
*×편역-들다	→/역성-들다	26
	/역성-하다	
편지-투	/편지-틀	26
편지-틀	/편지-투	26
포수	×총-댕이	22
×푸르락-	→붉으락-	25
붉으락	푸르락	
×푸른-콩	→청대-콩	25
푸죽-간	/고깃-간	26
	*×고깃-관	
	*×다림-방	
	*×푸죽-관	
*×푸죽-관	→/고깃-간	26
	/푸죽-간	
푼-돈	×분전	21
	×푼전	
×푼전	→푼-돈	21
×푼침	→분침	4
×뿔-머슴	→선-머슴	25
×피-죽	→죽데기	21

표제어	관련 단어	항
	(ㅎ)	
**하나-째		6
하나-하나	/일일-이	26
하여튼	/아무튼 /어떻든 /어쨌든 여하튼	26
한손-잡이	/외손-잡이	26
한턱-내다	/한턱-하다	26
한턱-하다	한턱-내다	26
한통-치다	×통-치다	15
해	/것	26
내 ~		
네 ~		
넋 ~		
*×해우-차	→/해웃-값 /해웃-돈	26
해웃-값	/해웃-돈	26
해웃-돈	*×해우-차 /해웃-값	26
해자-쟁이	/파자-쟁이	26
*×행-내기	→/보통-내기 /여간-내기 /예사-내기	26
*×향도-꾼	→/상두-꾼 /상여-꾼	26
×허드래	→허드레	11
허드레	×허드래	11

표제어	관련 단어	항
허드렛-물		
허드렛-일		
허우대	×허위대	10
* 허우적-거리다		10
허우적-	×허위적-	10
허우적	허위적	
×허위대	→허우대	10
×허위적-	→허우적	10
허위적	허우적	
×호구	→괴통	25
호루라기	×호루루기	11
×호루루기	→호루라기	11
호-콩	/땅-콩	26
혼자-되다	/홀로-되다	26
홀로-되다	/혼자-되다	26
*×홀겹-실	→/외겹-실 /외올-실 /홀-실	26
×홀-벌	→단-벌	22
홀-실	/외겹-실 /외올-실 *×올-실 *×홀겹-실	26
×화곽	→성냥	21
화냥-질	/서방-질	26
* 황-소		7
횃-배	/거위-배	26
휴지	×수지	5
흥내-말	/시늉-말	26
흥-업다	×흥-험다	17
×흥-험다	→흥-업다	17

표제어	관련 단어	항
흙-가다	/흙-나다 /흙-지다	26
흙-나다	/흙-가다 /흙-지다	26
흙-지다	/흙-가다	26

표제어	관련 단어	항
흰-말	/흙-나다 ×백-말 ×부루-말	21
흰-죽	×백-죽	21

## 집필 위원

### 표준어 사정 원칙

이용백 (서울대학교 교수, 표준어 심의 위원)

이익섭 (서울대학교 교수, 표준어 심의 위원)

### 표준 발음법

이병근 (서울대학교 교수, 표준어 심의 위원)

## 검토 위원

이기문 (국어연구소 소장, 표준어 심의 위원)

박갑수 (서울대학교 교수, 표준어 심의 위원)

정준섭 (문교부 편수관, 표준어 심의 위원)

및 집필 위원

## 표준어 규정 해설 (표준어 모음 제 1 집)

1988년 9월 25일 인쇄

1988년 9월 31일 발행

발행처 **국어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8

해영회관 905호실

전화 734-9867~9